

‘The-K’의 첫 번째 가치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50년, 슬로건은 달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The-K의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The-K입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호텔앤리조트 The·K 제주호텔 The·K 저축은행 The·K 교직원나라
 The·K 소피아그린 The·K 손해보험 The·K 서드에이지 The·K 에다함상조



CONTENTS

2018 DECEMBER VOL.16



4
여는 글
 겨울, 포근한 밤을 당신과 함께

6
Essay
 벌써 너희가 그림다
손영미 대구 왕선중 교사

8
Inside Out
 우리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말하다

12
Interview
 좋은 세상을 함께 누리는 힘
이윤준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18
Interview
 교육과 봉사로 이루는 참교사의 꿈
백운자 충남 당진 원당중 교사

22
아름다운 동행
 크리스마스보다 더 달콤한 12월 우리만의 여행
장욱현·윤상훈 구미봉곡초 교사
변지현 구미문성초 교사 & **김재연** 형일초 교사

28
먼 나라 나눔 편지
김용민 의사와 함께하는 국경없는의사회 ❶
 분쟁 없는 지역을 위하여
김용민 정형외과 전문의·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32
트렌드 Go Go
 어서 와, 사람 아닌 가족은 처음이지?

34
행복 만들기
 지름 1.2m의 즐거움을 들다
 세종시 체육교사 킨볼 동아리 '킨더조이'

38
네오필리아
 나를 위한 '비움'

40
브랜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❶
 아비뇽, 신과 인간의 시간을 엮어서

46
문화 산책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만든 기적 같은 인연
 뮤지컬 <마틸다>

48
아는 공간
 공존의 공간을 넘어서
 DMZ철새평화타운

52
The-K Focus
 공제회와 함께 설계하는 풍요로운 노후 생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56
The-K Family
 오직 진심과 정성으로만 모십니다
 The-K예대참상조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12월 즉석당첨 이벤트

63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아듀, 우리의 산타

The·K

VOL.16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12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강나은 엄용선
교열	박해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이은정 uncheang@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인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겨울,
 포근한
 밤을
 당신과 함께

당신의 새벽이 궁금한 밤입니다.
 오늘의 밤이 지나 내일의 해가 유리창에 걸터앉을 때까지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지금의 시간을 따라
 저 별과 달을 따라 시간이 흐른 만큼
 새벽잠을 세며 기대해봅니다.
 열두 달 중 마지막 달을 보내는 우리의 꿈이
 조금은 더 특별하기를.

겨울밤의 러브 레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걸으려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보다 평범해도
 당신과 함께 나누고픈 올해의 마지막 밤이
 어찌면 생애 가장 특별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거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름다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훔친 우리가
 당신의 마지막 밤만은 함께하기를.
 당신의 아침이 무척이나 궁금한 새벽입니다.

*영화 <화양연화>의 마지막 구절

벌써 너희가 그림다

글 손영미(대구 왕선중 교사)



애정하는 2331에게 보내는 편지

아침 조회 시간마다, 마치는 종례 시간마다, 수업 시간에도 보면서 이렇게 글로 너희에게 인사하기는 처음이구나. 예전에는 학급 친구들에게 종종 편지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을 쓰지 않는 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가슴이 아릴 듯 서늘한 상처를 받으면서부터였는가? 갑자기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면서부터였는가? 4년 동안 내리 중학교 2학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받은 아픔이 차곡차곡 쌓였단다. 가슴과 눈에 거울 조각이 박힌 카이처럼.

너희는 알고 있을까? 개학 날 내가 더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른한 명의 눈동자가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떨리는지를, 과연 너희가 알까? 늘 그렇게 떨리고 긴장되어 개학 전에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며칠을 꿈에 시달리면서, 절대 아닌 척하면서 너희 앞에 선단다. 개선장군보다 더 당당한 자세로.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욱 크다는 말이 명언처럼 가슴에 꽉 박혀서 따끔따끔한 지 3년째에 너희를 만났어. 기계처럼 움직이는 입에서 나오는 전달 사항이 너무나 무미건조하다는 걸 느낄 때, 나의 번아웃 증후군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사서 선생님에게서 우리 반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장 많이 방문한다는 걸 들으면서부터였나? 벚꽃 핀 교정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결석한 친구들을 살뜰히 챙기는 유정이를 보면서부터였나? 어느덧 봄바람에 휘날리는 벚꽃이 내 가슴에 살포시 앉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필 <나의 아버지>를 가르칠 때 연수에서 배운 수업 기법을 적용하고자 결심했다.

우리의 첫 전화 수업. 가족과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시나 수필로 적은 뒤 반 전체 친구가 보는 앞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지. 전화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한 말, 기억하니?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무슨 일 있니? 뭘 잘못 먹었니?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니?” 하며 당황하시는 부모님도 계셨고, “그래 아들, 딸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하며 따뜻하게 응답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지. 그러면 내가 “부모님과 관련된 추억을 ○○가 시나 수필로 적어서 직접 읽어드리러 전화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라고 설명드린 뒤 너희가 쓴 글을 스스로 부모님께 읽어드렸지. 그러고는 부탁을 드렸단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면 짧게라도해주세요” 하고. 다 듣고 나면 너희는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쳐주었지.

처음 이 수업을 하자고 했을 때 당황해하던 너희의 눈빛이 기억난다. 그래도 다들 부모님께서 전화를 못 받으시면 어쩌나 걱정했어. 어떤 친구는 부끄러워 전화하기 싫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담담하게 바로 전화기를 들었지. 그거 아니? 자신의 혹은 친구의 전화에 감동받아 울기도 하던 너희 모습이 얼마나 예뻐는지. 평소 교실에서 얌전하던 모습과 달리 음악만 나오면 리듬을 타던 모습도 떠오른다. 응원할 때 자리 이탈

하지 말라고 해마다 당부해도 늘 자유로운 영혼처럼 돌아다니던 학생들만 보다가 축구 골대 앞에 웅기 쫓기 앉아 따가운 5월 햇살 아래서도 목 놓아 ‘3반’을 외치던 너희가 점점 더 내게로 다가왔다. 10월 한글날 기념 문예대회에서 ‘학교생활’로 사행시를 적은 친구가 더러 있었지. 글썽씨를 떠나 놀란 건 하나같이 긍정적인 내용을 적었다는 거야. 너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대회 성과와 상관없이 흐뭇했단다.

손영미 대구 왕선중 교사
교직에 발 들이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교사. 상담심리를 전공했으나 아직도 학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 특히 4년 동안 줄곧 중학교 2학년 담임을 하면서 더욱 고민하고 갈등 중인 교사.

학처럼 꿈을 펼치고
교사의 지식을 얻고
생활하는



활처럼 날카롭지만 깊이 파고드는 곳, 학교

2-3 김규민

학생들이
교내에서
생활하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왕선중학교



2-3 유재섭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류하며 정을 쌓고
생기 있고 다채롭게 지내며
활기차게 지내보자.



2-3 권대현

학교에는 우리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과
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네
교실에는 혼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착한 친구 있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는
활쏘듯이 매일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해나가네.



2-7 김민서

늘 반짝이는 눈동자로 날 응시하는 현지, 조용하지만 리더십이 있는 지우, 효심 깊은 태곤이, 잘못된 즉각 인정하는 대현이,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정이, 따뜻하게 배려하는 섬세한 우영이, 재능 넘치는 밴드부 해창이와 민욱이, 인사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연진이, 문학 감성 넘치는 가현이, 절대 친절 지윤이, 독서 사랑 예원이와 은채, 유빈이, 비글미 넘치는 다영이와 (전)혜원이, 축구 사랑 규민이, 지각대장 부강이, 미소 천사 수빈이, 든직한 하준이, 아기 같은 진협이, 능글맞은 재섭이,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멋진 머리 성후, 6월부터 함께한 수줍음 많은 소녀 (안)혜원이, 책임감 강한 상화, 친절함 경태씨, 소년미 뽀뽀 형민이, 나른한 인균이, 은근 장난 성준이, 거친 언어 건호, 실눈 미소 유나까지.

인생은 하나의 시험 같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시험. 어떨 때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어떨 때는 선택지가 있다가도 어떨 때는 대학 입시 논술 시험보다 더 어려운 서술형 평가지가 내 앞에 놓인다. 내게 있어 너희는 언제나 이런 시험 같은 존재였어. 항상 어려워서 나의 부족함에 좌절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지. 올해 너희가 내게 바로 선물 같은 존재란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교직 경력에 더러 따뜻한 아이들이 있었지만, 올해 너희처럼 대부분 아이가 순수함과 따뜻함으로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어. 하지만 요즘 사춘기인지 예전과 달리 쌀쌀맞고 시큰둥한 너희를 보면 마음이 아린다. 차가운 겨울,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따갑게 스치듯 너희의 행동 하나하나에 심장이 쿡쿡 쑤신다. 벌써 너희가 헤어짐을 준비하는 것일까? 그래도 애정하는 2331, 너희와의 헤어짐이 아쉽다.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비록 지금은 너희가 뽀족뽀족 날이 서 있지만, 시간이 흘러 날이 따뜻해지면 너희도 조금 더 둥글어져 있겠지?

벌써 너희가 그림다.



우리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말하다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공제회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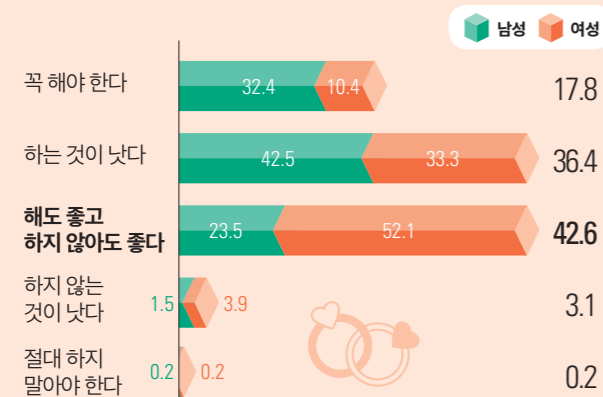
기간 2018년 11월 1~4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고직원공제회 회원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3407명

성별	남성	33.5
	여성	66.5
	20대	11.6
연령	30대	28.4
	40대	30.6
	50대	22.1
	60대 이상	7.4
직업	교원	59.3
	비교원	40.7
	유치원	2.8
	초등학교	28.7
	중학교	15.4
	고등학교	17.6
	대학교(병원)	27.8
	교육 연구/행정/연구기관	6.0
	기타	1.7
	근무하는 직장	미혼
기혼		73.0
자녀 있음		88.9
결혼 상태	있음	88.9
	없음	11.1

전체 대상 질문

(단위: %)

Q. 인생에서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Q.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없이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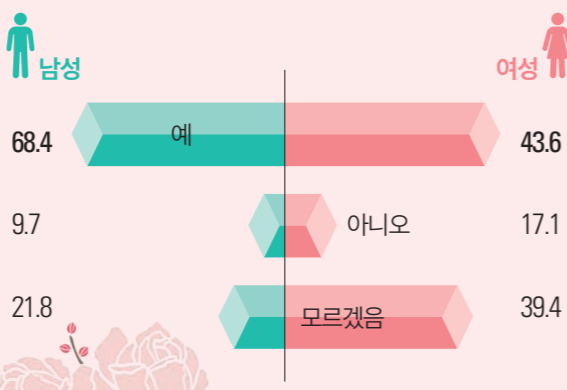


미혼자 대상 질문(남 206명 · 여 714명)

Q.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대 2개)



Q.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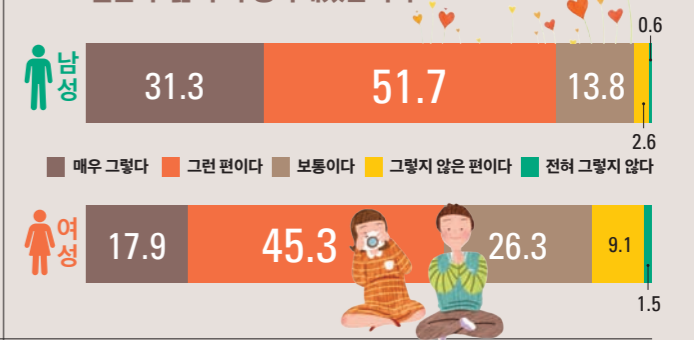
(단위: %)

기혼자 대상 질문(남 934명 · 여 155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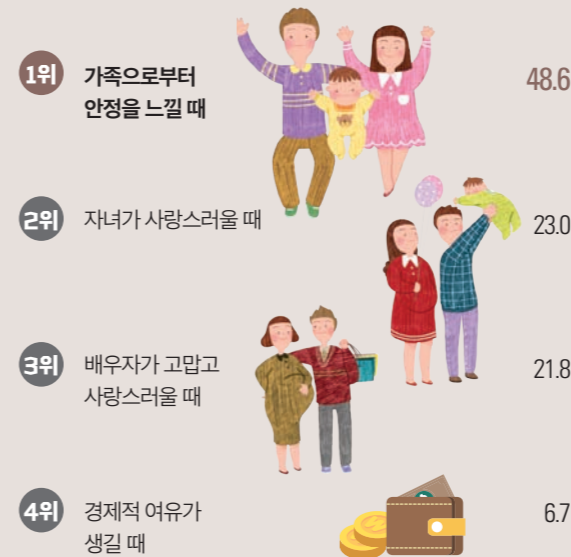
Q.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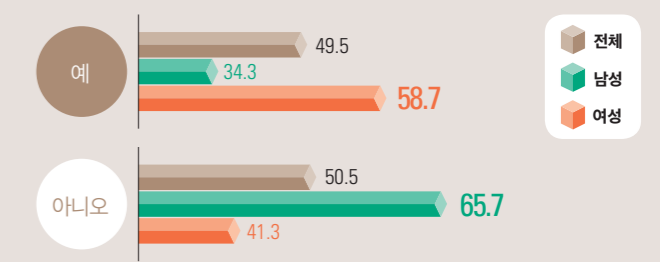
Q. 결혼 후 삶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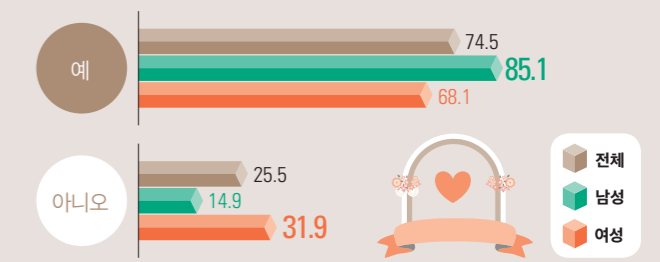
Q. 언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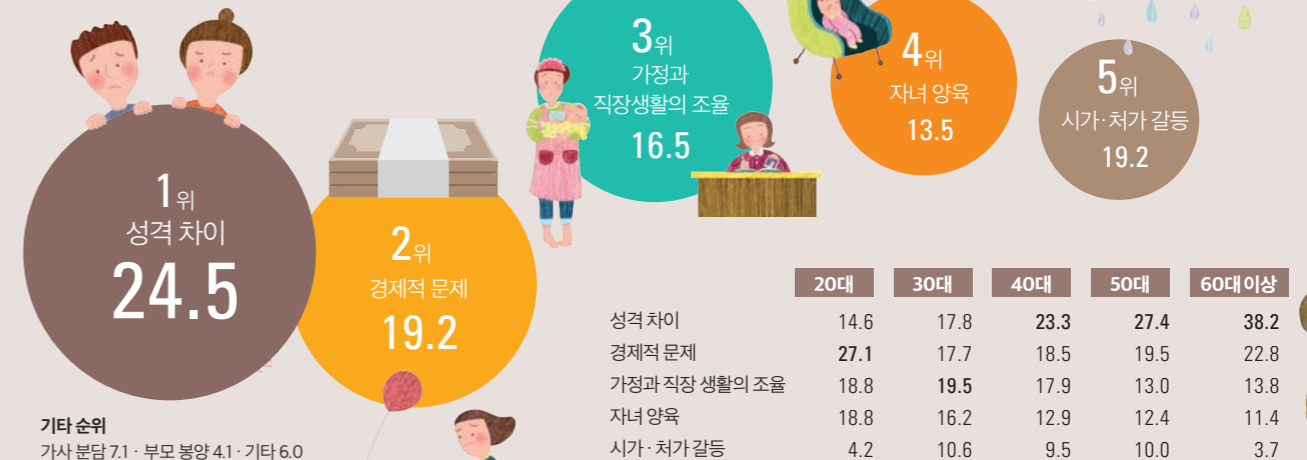
Q.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 있습니까?



Q. 과거로 돌아간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Q.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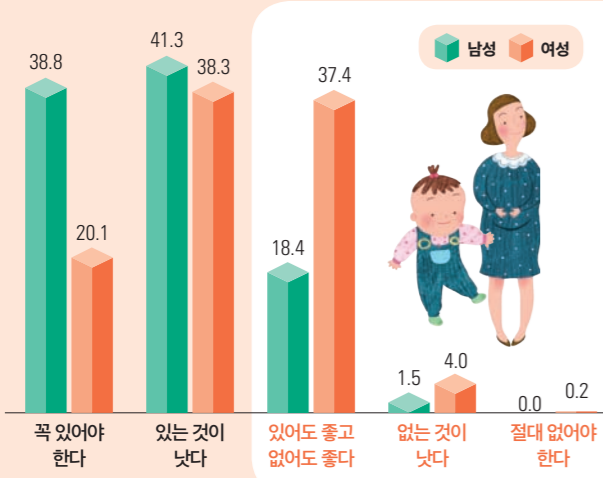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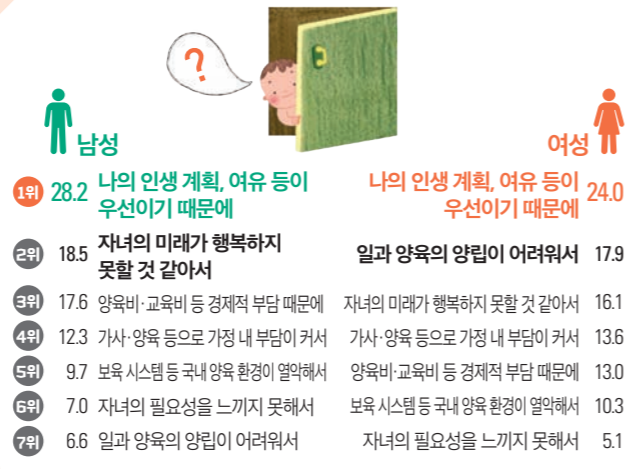
(단위: %)

전체 대상 질문

Q. 인생에서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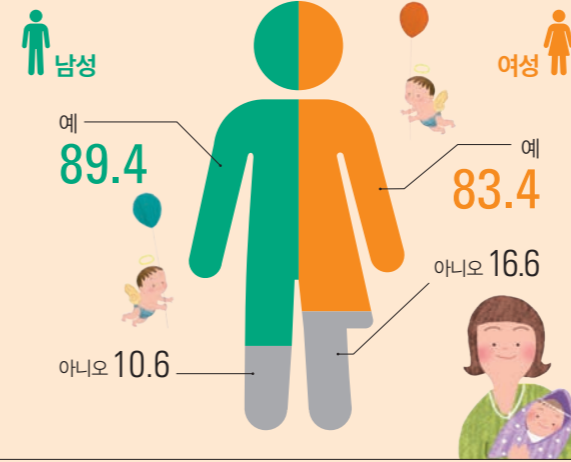
Q.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있는 기혼자 대상 질문(남 862명·여 1348명)

(단위: %)

Q.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출산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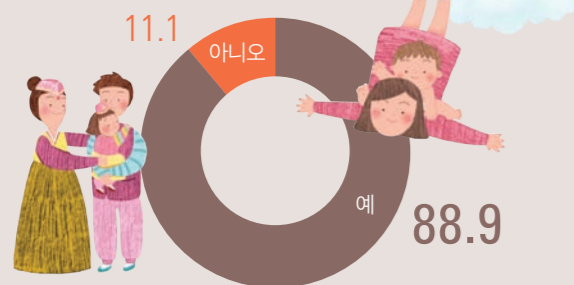


Q. 귀하의 자녀 양육 방법은 어떻습니까? (최대 2개)



기혼자 대상 질문(남 934명·여 155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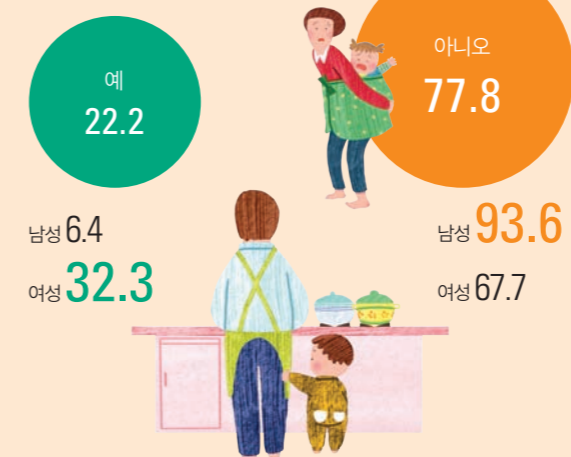
Q. 현재 자녀가 있습니까?



Q. 현재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주관식)



Q. 육아휴직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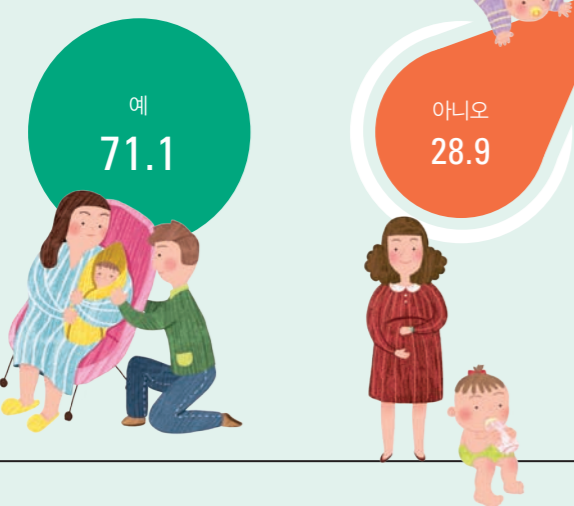


Q.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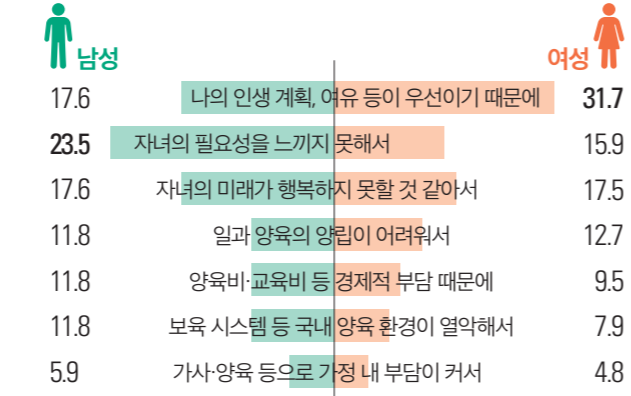


자녀가 없는 기혼자 대상 질문(남 72명·여 2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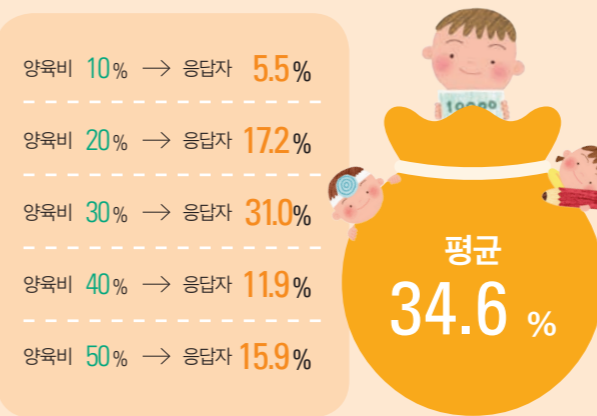
Q. 앞으로 자녀 출산 계획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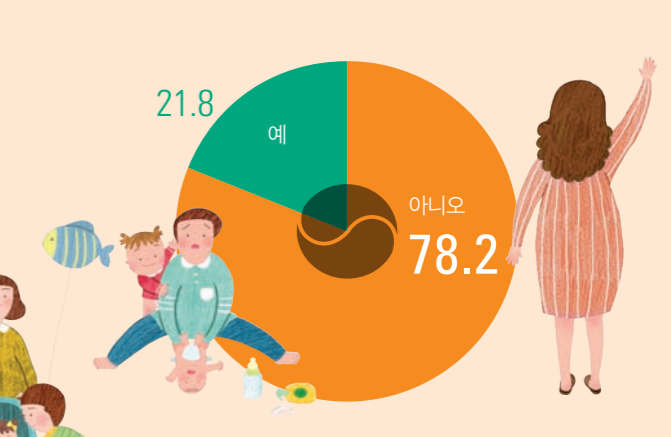
Q.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관식)



Q. 가계의 월 소득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관식)



Q. 우리나라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이윤준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좋은 세상을 함께 누리는 힘

누구나, 어디서나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시대.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좋은 세상을 함께 누리도록 돕는 힘이 필요하다. 여기에 '함께 누리는 힘'을 강조하며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길을 헤매는 이에게 나침반이 되어 길을 터주고, 때로는 등불처럼 길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 이윤준 카이스트(KAIST) 전산학과 교수를 만난 이유는 충분했다.

글 강나은·정수희 사진 한상무

Lee

Yoon Joon



어 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나 다문화 가정, 기초수급 가정, 보육원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지역을 모색해 교육 재능 기부를 진행한다. 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엔트리를 이용해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접하거나 언플러그드 보드게임을 활용해 아이들이 소프트웨어와 친해지도록 돕는다. 과학·환경과 관련한 코딩 교육은 물론 프로그래밍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다양한 경험도 해본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인천의 한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언어로 통역하는 수업을, 소년원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에서는 새 희망을 선물하는 등 지역과 각각의 특수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봉사단의 몫이다.

교수와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SW교육봉사단은 현재의 디지털 교육을 아쉬워한 몇몇 대학교수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미미할 당시 “우리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가르쳐보자”며 행동으로 옮겼다. 그 중심에 이운준 교수가 있었다. 30년 이상 강단에 몸담으며 학생들과 소통하던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계룡산 끝자락, 좁은 길을 지나자 작은 학교가 보였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하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전교생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 남선초등학교. 이곳에서 이운준 교수를 만났다. 이날은 이운준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SW KOREA) 소프트웨어교육봉사단(이하 SW교육봉사단)의 교육 재능 기부가 있는 날. 남선초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다.

“이건 햄스터라는 로봇이에요. 애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제가 이렇게 도미솔이라고 음을 고르면, 햄스터 로봇이 그대로 연주를 해요. 또 장애물을 인식해서 주차를 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알면 알수록 굉장하 재미있어요. 이런 과목을 배우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김아라(6학년 1반) 학생뿐이 아니다. 모든 아이가 수업을 즐기는 것은 물론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정도로 이해력이 뛰어나다.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공교육의 흐름도 바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다분하다. SW교육봉사단은 소프트웨



그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앱센터’를 2017년부터 맡으면서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로 사명을 변경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년 교육을 위한 다짐이었다.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목적으로 재능 나눔을 실천하며 학교 현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력한다. 오로지 교육을 위한 길로 시작했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사단법인으로서 수많은 학교의 학생을 가르치긴 역부족이기 때문. 아이들의 간식비, 대학원생의 차비 등도 계산하자니 서너 개의 학교에 가기도 벅찼다. 다행히 지난해 SK테크엑스에서 1억원을 지원받으며 현재는 열두 개의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저 공평하게 모두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에게 자질이 있는지 모르는 만큼 적어도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지 못했어’라는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길 바랐어요. 우리 힘은 미약하겠지만 이렇게나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공학을 위하여

1973년 우리나라에 있는 컴퓨터는 고작 66대뿐이었다. 고작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컴퓨터라는 존재는 귀하디귀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광고 지면에 눈길을 빼앗긴 청년, 이운준 교수와 소프트웨어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현재의 키스트(KIST) 전산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는 광고였어요. 그때까지 컴퓨터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저 재밌어 보여서 무작정 배우러 갔죠. 등록하고 보니 대학생은 저 혼자였어요. 모두 대학원생이거나 전문 연구원, 직장인이더라고요.”

그 당시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와 전혀 달랐다. 카드에 명령어를 적어 컴퓨터에 넣으면 명령을 수행해 종이에 결과가 나오는 식이었다. 하루에 한 번 명령어를 집어넣고 다음 날이 되어야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으니 그는 어지간히 감질이었다.

“명령어를 두세 번 더 넣고 싶은데, 하루 한 번으로는 성이 안 찼죠. 마침 연구원 한 분이 낮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급여 대신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은 만큼 쓰라는 조건이었죠.





“

그저 공평하게 모두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에게 자질이 있는지 모르는 만큼 적어도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지 못했어’라는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길 바랐어요. 우리 힘은 미약하겠지만 이렇게나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때는 ‘대박’이라는 생각으로 냉큼 기회를 잡았어요.”

새로운 문물에 눈뜬 청년의 호기심은 꾸준했다. 마침 그가 다닌 서울대 응용수학과가 계산통계학과로 통합·신설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울 수 있었다. 그 후 카이스트 전산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프랑스 알프스에 있는 그레노블 폴리테크(INPG-ENSIMAG, 현재 Grenoble INP;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한 뒤 그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1984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태동을 시작한 때였다.

소프트웨어를 처음 접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에게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흥미롭고 배울 게 많은 분야다.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문제를 풀면 희열이 있잖아요. 바로 그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답이 나와요.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과 비슷하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렸는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인간적인 공학’이라고 단언한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문제를 겪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므로, 모두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협력의 세상을 꿈꾸며

요즘에야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쏟지만, 막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우선 교육을 이끌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에서는 30~40명의 대학교수와 강사를 교육하는 TTT(Teachers to Teachers)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대학 교수와 강사 사이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TTT는 큰 의미를 갖는다.

“선생님 한 명당 50명씩만 가르쳐도 한 학기에 최소 150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게다가 TTT로 얻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교류도 할 수 있으니 엄청난 효과죠.”

또한 그는 대학생을 위한 K-Hackathon을 열고 있다. K-Hackathon은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이 개발한 앱 중 우수한 것을 가리는 경진대회. 타 대학 학생들이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역할도 한다. 그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직 그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강의를 하고 싶어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게임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직접 게임을 만들어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싶고요.”

이윤준 교수는 오래전부터 “초등학교부터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교육이 아닌 컴퓨터 네이션 싱킹을 가르치자”라고 주장해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답이 정해진 교육’에 따라왔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배울 것은 ‘해답이 없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정확한 답을 빨리 구하는지 그 요령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을 가르쳐야 해요. 그것이 바로 컴퓨터 네이션(Computer Nation)에 대한 생각이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인재 양성’만이 아니다.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협력을 배워나가길 기대한다. 소프트웨어는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분야. 혼자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지금의 아이들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친구가 경쟁 상대가 아닌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잉 경쟁이 아닌 협력이 바탕이 된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마다 생각하는 살기 좋은 세상은 다르다. 누군가는 기술 발전으로 삶이 더 풍요로워질길 원하고, 누군가는 기술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길 기도할 것이다. 이윤준 교수 또한 더 좋은 세상을 향해 열심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교육과 봉사로 이루는 참교사의 꿈

백운자 충남 당진 원당중 교사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쁜 인물이 있다. 백운자 충남 당진 원당중학교 수석교사는 주중에는 교내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봉사 활동에 나선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갓 부임한 신입 교사에게는 멘토로서, 선배로서 고민 상담과 함께 교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심도 있는 길을 제시한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

충남 당진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 '당진실버하우스'는 그야말로 북적북적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한데 뒤섞여 웃고 떠들고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움직이니 마치 작은 축제가 열린 듯했다. 백운자 교사가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는 당진실버하우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학기 중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찾은 곳이다. '행복한 동행 봉사단'은 백운자 교사가 이끌고 중학생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단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찾아와 어르신들의 발을 마사지해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말벗이 되어드리다가 점심까지 함께 지어 먹는다.

“교사로서 봉사 활동이라는 브랜드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청소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었죠. 또한 봉사는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참여하니 어느 순간 학부모들도 함께하기 시작했고, 졸업생들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와요. 지금까지 매주 30~40명의 아이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의 말대로 당진실버하우스에서의 봉사 활동은 중학생이 주축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전문적이다. 강해인(원당중 1학년) 학생과 여인영(원당중 1학년) 학생은 어르신들 앞에 앉아서 스팀 타월과 크림을 이용해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발을 지압하고, 주방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준비를 하는 오승석(당진중 3학년) 학생의 능숙한 칼질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

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치매 어르신들과 퍼즐을 맞추고 어깨와 팔을 안마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에 까르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는 것이다. 금요일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심 어린 마음과 성의는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채영신'을 꿈꿔온 소녀, 농촌을 좋아한 소녀

백운자 교사는 봉사가 지닌 교육적 힘을 확신한다.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의 현장을 눈앞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처음 봉사 활동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에게 분명 교육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봉사하러 온 아이들 중에는 모범생도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문제 학생, 따돌림당하는 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봉사 점수를 다 채웠음에도 계속 찾아왔어요. 회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은 점점 바뀌어갔는데, 성격이 더 밝아지고 교우 관계도 발전하더군요.”

처음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 발을 만지냐”며 질색하던 아이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쓰다듬는다. 학교에서 위축되거나 분노에 차 있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며 조금씩 자존감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는 교실에서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독 꾸준히 봉사 활동에 따라오던 아이가 있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아이인데 열심히 참여하더니 결국 대학도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해 진학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나면 틈틈이 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제게는 봉사로 얻은 기적이자 교사로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쁨, 보람이지요.”

결모습부터 교사 외에는 다른 직업을 상상하기 어려운 백운자 교사가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다. 심훈의 <상록수> 속 ‘채영신’ 같은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은 것. 자신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본가가 경기도 부천임에도 당진까지 내려온 것은 ‘채영신’처럼 농촌 지역의 교사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당진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자연도 아름답고 바다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웃음) 교생 실습도 당진에서 했고, 저를 잘 봐주신 교장 선생님 덕분에 당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도저히 이곳을 떠날 수 없었지요.”

각자의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삶을 위해

교편을 잡은 지 어느덧 38년. 백운자 교사는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치고 변화시키면서 행복하게 만들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한다. 하루르타 수업을 적극 도입해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 수업에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루르타 수업은 유대인의 전통 교육법으로 ‘작을 지어 공부하는 학습법’을 의미합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르타 수업을 하는데, 책을 읽은 뒤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고 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이 수업을 하기까지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수업은 보통 주입적이고, 시험을 보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하루르타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토론하는 형태여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습니다.”

하루르타 수업을 막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당연히 입도 떼지 못했다. 문장을 읽고도 질문을 만들지 못했고, 토론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매일 백운자 교사와 함께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 이제 아이들은 거뜬히 질문을 만들고 논쟁을 통해서

로에게 배운다. 그리고 이를 학부모를 위한 수업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아이들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온종일 학원을 전전하다가 집에 돌아가니 예전에 중요하게 교육받은 말, 행동, 예의범절 같은 가정교육은 부재한 채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루르타 수업을 하는 것도 아이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는 학부모에게서 의외의 면을 발견했다.

“생각 외로 학부모의 말문이 금세 트였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도 크게 마음 쓰기 시작했어요. 다들 감증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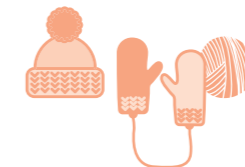
백운자 교사가 운을 떼면 학부모는 딸이 되어 편지를 쓰고, 책을 읽으며 키워드를 찾고 질문을 만들어 같은 책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오후 7시에 시작한 강의 자정을 넘어 끝나기 일쑤인 이유다.

“지금은 성적, 점수가 아닌 원칙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내가 누군지 알며 서로 협력하고 배려심을 갖고 살아야 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모든 게 남 탓이고 원칙이 없어요. 학생은 학생의 원칙을, 교사는 교사의 원칙을, 부모는 부모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교사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묻자 백운자 교사가 확신에 찬 답변을 했다.

“수업과 봉사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수업을 정말 잘하는 교사이자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행복을 누리는 봉사를 퇴직 이후에도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뭐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선생님’으로, 실버하우스 어르신들에게는 ‘딸 같은 고마운 양반’으로, 학부모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스승’으로 하루를 분초로 쪼개 쓰는 백운자 교사. 그가 가는 길의 ‘옴’은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흔들림 없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수업과 봉사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수업을 정말 잘하는 교사이자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행복을 누리는 봉사를 퇴직 이후에도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달콤한 12월 우리만의 여행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 이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본 사람은 안다.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12월 아름다운 동행은 선물 그 자체였다. 4명의 교사가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받는 선물이었으니, 사전적 의미보다 더욱 따뜻한 마음이 담긴 '12월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북 군산에서 풀어보았다.
글 강나은 사진 한상무

장옥현·윤상훈 구미봉곡초 교사
&
변지현 구미문성초 교사
&
김재연 형일초 교사



오롯이 우리만을 위한 우리의 여행

언뜻 보기에는 의아한 조합이었다. 50대 1명과 30대 3명, 게다가 성별도 다른 네 교사는 무엇이 서로에게 끌렸는지 만나자마자 마냥 좋았다. 구미봉곡초 6학년 1,2,3,4반 담임이던 네 사람은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교과 연구를 하면서 함께였다. 네 사람의 생일은 물론 합창단 공연을 할 때도 늘 함께였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에서 수많은 동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4년 전 만난 우리 육봉회원을 잊을 수 없어요. 이 젊은이들이 저를 어찌나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다면 꼭 이들과 함께하고 싶었죠.”

장옥현 구미봉곡초 교사는 <The-K 매거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들이 생각나 ‘아름다운 동행’에 응모 글을 적어 내려갔다.



변지현 구미문성초 교사는 응모 글 자체가 선물이라 전했다.

“응모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몽클했어요. 수많은 인연 중에서 저희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게다가 여행까지 오게 됐으니 옥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주변에서 어찌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서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네 사람은 4년이 넘도록 인연을 이어오면서 꾸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럼에도 여행은 쉽게 엄두를 낼 수 없었다. 2014년 수학여행 답사가 이들의 마지막 여행이었으니, 학생들을 위한 여행을 한 적은 있어도 네 사람만을 위한 여행은 떠나보지 못한 셈이었다.

우리의 행복하고 향기로운 시간

그렇게 익숙하기도, 낯설기도 한 이들의 여행은 초를 만드는 공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들과 초를 만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넷이서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감회가 새롭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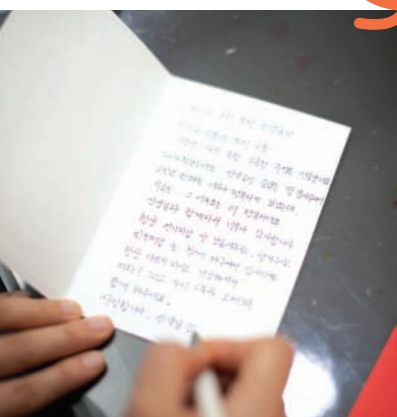
김재연 형일초 교사는 네 사람이 만드는 새로운



추억 앞에 설렘이 앞섰다. 초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오르자 원하는 향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 뒤 슬슬 저어 용기에 부었다. 자신만의 향으로 조용히 단단해지는 초 앞에서 네 사람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카드를 쓰기로 했다. 언뜻 윤상훈 구미봉곡초 교사의 카드를 훑쳐본 장옥현 교사는 “내가 카드에 쓴 글은 너무 짧은데 상훈이 글은 길다”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내용이 긴 게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선생님은 저희에게 책도 만들어주셨잖아요.”

윤상훈 교사의 말에 모두 장옥현 교사가 만들어준 작은 책을 떠올렸다. 장옥현 교사는 네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인쇄한 뒤 그날의 기록을 담아 책으로 만들어 다른 세 교사에게 나눠줬다. 이 책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다. 장옥현 교사도 편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바로 변지현 교사다.

“2월에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편지와 스카프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지현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기 전에 남겨둔 것이었죠. 그렇게 정성스러운 편지는 평생 처음 받았어요. 어찌나 감동적이었는지 편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편지는 서로 주고받았지만 크리스마스카드의 처음이라는 이들. 카드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사이 어느새 초가 완성되었다. 향기롭고 따듯하게 머물다간 그들이었다.

추억을 이야기하며 쌓아나간 또 다른 추억

군산은 시간이 멈춰 있는 도시다. 우리나라 근대 사회의 아픔과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특히 커다란 옛날 우체통이 우뚝 선 해망로196에 들어서면 추억과 손때가 가득한 물건 앞에서 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뼈저덕거리는 나무 바닥과 오래된 풍금, 낮고 작은 의자와 책상이 그때 그 시대, 그 모습으로 남아 있다. 한없이 정겨운 교실로 들어서자 이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떠올렸다.

“나 처음 부임했을 때도 저런 풍금이 있었어. 풍금을 치면서 아이들과 노래를 불렀는데...”

내친김에 장옥현 교사는 풍금에 앉았다. 세 교사는 그 앞에 서서 예전 노래를 불렀다. 비록 풍금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게 대수랴. 그들의 머릿속 추억의 멜로디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동구 밖 과수원 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네 사람은 사제시간처럼 친구 사이처럼 노래를 부르며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추억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곧 경암동 철길마을로 향했다. 이곳은 마을 사이로 시속 10km의 느



린 열차가 다닌 곳이다. 철길 바로 옆으로 줄지어 선 마을에는 밭이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아이들이 놀곤 했다. 하루 두 번 이 느린 열차가 지날 때면 역무원 3명이 호루라기를 불며 마을 사람들에게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렸다.

지금 기차는 멈췄지만 그 시절 추억은 여전하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는 불량 식품과 오래전 교복도 경암동 철길마을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쓸모없게 된 철길에는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글귀가 적혀 있다. “사랑하라, 봄처럼” 이 문장처럼 철길을 걷는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 주택은 물론 아파트에서도 연탄을 썼어.” “맞아, 새벽에 어머니가 연탄을 갈아주셨죠.” “우리는 나무를 때다가 연탄을 땀지. 그 뒤에는 곤로를 썼고.”

세대는 다르지만 연탄에 얽힌 기억을 공감하며 네 사람은 철길을 따라 걸었다. “우리는 동료로 처음 만났지만 이제는 함께한 추억이 많아서 동반자 같다”는 윤상훈 교사의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항상 함께였다. 장옥현 교사는 “사진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잡기 위해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행으로 네 사람은 오래도록 꺼내 볼 선물을 받았다며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김재연 형일초 교사

제가 모임의 약속을 미룰 때가 많은데, 나머지 세 분께서 "재연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다 돼"라면서 늘 제 시간에 맞춰주세요.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주셔서, 함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장옥현 구미봉곡초 교사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신청했지만 여행이 재미없으면 어쩌나, 힘들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1박 2일 동안 참 행복했어요.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시기는 우리가 만난 2014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틀간 그 이상으로 행복함을 느꼈어요. 행복을 건네준 아름다운 동행 팀에 감사드려요.

변지현 구미문성초 교사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는 말은 딱 이번 여행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 날씨마저 좋아서 행복했고, 날씨가 좋지 않은 덕에 여운이 남아서 행복했어요. 1년 옷을 걸 이틀 동안 닦아줬네요.

윤상훈 구미봉곡초 교사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번에 함께 여행하면서 오랫동안 눈빛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넷은 더 애뜻하고 깊어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카드에도 적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이 모임이 이대로 꾸준하면 더 바랄 게 없네요.

1박 2일 여행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향,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붙잡고 싶은 행복한 장면

신선이 머무르다 갔을 법한 풍광을 사랑하는 군산의 선유도. 그중에서도 으뜸은 선유도해수욕장의 석양이다. 다 함께 그곳으로가는길, 새만금방조제에는 거세게 바닷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서히 먹구름이 하늘을 채워가기가 무섭게 선유도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무렵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넘칠 것 같은 바다 위로 끊임 없이 빗물을 퍼부었고, 파도는 곧 모래사장을 삼킬 듯했다. 바다를 보겠다며 나선 네 사람. 비인지 파도인지 짜디짠 물에 옷이 꽤 젖었다. 결국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히 일몰을 기대한 만큼 아쉬움이 컸다. 그 때문일까. 민기지 않게 하늘은 잔뜩 찌푸린 얼굴을 풀며 먹구름을 치웠다. 먼바다 주위로 퍼지는 붉은 빛에 부랴부랴 차를 돌렸다. 흑여 농칠세라 새만금방조제 초입의 비응항에 급히 내렸다. 여전히 바다는 파도를 뒤척이며 화를 냈지만 석양이 부드럽게 달랐다.

"넷이서 석양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니 웬지 눈물이 나네요." 변지현 교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 선유도에서 일몰을 봤다면 과연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오히려 예상외의 오가는 길과 과정마저도 좋네요." 그동안 네 사람은 늘 함께였지만 사진에는 셋뿐이었다. 한 명은 행복한 순간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여행만큼은 달랐다. 사진 속 네 사람은 항상 함께였다. 장옥현 교사는 "사진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잡기 위해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행으로 네 사람은 오래도록 꺼내 볼 선물을 받았다며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 1박 2일의 시간. 짧지만 유난히 특별했던 이들의 추억은 오래도록 꺼내 볼 행복한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



완주옥

군산 하면 해물이 푸짐한 중식을 떠올리지만 떡갈비도 못지않게 유명하다. 군산 떡갈비의 원조로 불리는 완주옥은 한우를 투박하게 다져 식감을 살린다. 고기는 간이 적당히 배어 고소하고 불맛이 살아 있어 절로 밥을 부른다.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곱탕도 맛보자. 국물이 기름지지 않아 떡갈비와 함께 먹기에도 좋다. **📍 전북 군산시 평화길 100** **☎ 063-445-2644**

군산시간여행마을

군산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명소를 한데 묶어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지정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히로스 가옥), 군산항쟁관, 동국사 등은 일제강점기에 가해진 수탈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한다. 1998년 개봉한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은 영화 속 모습 그대로 남아 추억을 선사한다.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 일대**

경암동 철길마을

1944년 신문 용지 제조업체가 만든 화물열차는 하루 두 번 철길을 지났다. 시속 10km로 달리는 열차가 보이면 주민들은 밖에 널어놓은 고추 등 세간을 들고, 강아지도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토록 느린 열차는 2008년 통행을 완전히 멈췄지만 빨랫줄과 텃밭 등 마을 일상이 고스란히 남아 세월의 흔적이 되었다. **📍 전북 군산시 경춘4길 14**

선유도해수욕장

군산 여행에 섬을 빼놓을 수 없다. 크고 작은 5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산군도. 그중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는 세계 최장 1주탑 현수교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로 이어져 이동하기 편하다. 선유도해수욕장과 장자도의 석양은 황홀한 절경을 선사한다. 새만금방조제 드라이브 길의 바닷바람도 만끽해보자.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길 34-22(옥도면) 일대**

| 팔레스타인 |



분쟁 없는 지역을 위하여

지난 5월, 새로운 삶을 위해 국경없는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s) 구호활동가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발걸음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거쳐야 갈 수 있는데, 두 나라 사이는 높다란 콘크리트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장벽을 통과하는 유일한 통로, Erez Crossing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곳,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글 김용민(정형외과 전문의·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사진 김용민 외

짧지만 강렬했던 환자와의 만남

첫 진료는 가자 클리닉에서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3~6주 전 국경에서 시위를 하다 총에 맞은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총상 환자는 응급으로 골절 외 고정과 괴사 조직 제거(Debridement)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 시위와 총격(이스라엘 저격수가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다리 중 주로 무릎 아래만을 노린 사격)이 반복됨에 따라 다음 주말이면 매번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만큼 응급 수술은 매주 진행되고, 기존에 입원한 환자는 정처 없이 쫓겨나야 합니다. 일부는 어디에선가 치료를 받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방치된 채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자 클리닉에서 제가 만난 환자는 대부분 이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통사고 등으로 종아리의 개방성 골절 환자를 흔히 보지만 총상에 의한 골절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가자 지구 환자의 총상은 작은 원형의 금속 물체(총탄)가 뼈를 분쇄하는 분쇄상 골절에 속합니다. 결국 이들은 뼈의 골절 유합(아뭉)을 비롯해 개방성 골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인 골수염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런 환자가 한둘이 아니라 동시에 수백, 수천 명 발생하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CT를 한 번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조차 첫 손상 시에만 촬영이 가능하고, 그마저 화질이 매우 나쁜 편입니다. 심지어 엑스레이 필름도 없이 오는 사람이 허다하니 뼈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지요. 현대의 첨단 진단과 치료 장비를 이용한 진료만 하던 의료 선진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몹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자포자기 심정이 들 수밖에요.

2010년 아이티 지진 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기는 물론 엑스레이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마취가 필요한 수술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도 자칫 제 역할을 포기할 뻔했지만, 국소 마취를 이용한 창상 봉합을 통해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던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그나마 아이티보다 나은 것은 전신마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마취과 의사와 수술장 간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은 가자 지구 남쪽 끝에 위치한 Khan Younis(Caravansary of Jonah; 요나의 숙소)에 외래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현지 의사 2명과 함께 많은 총상 환자를 진료했지만, 치료 방향과 의견만을 제시할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 10대 중반 소년인데, 발에 총상을 입어 뼈가 모두 부서져 있었고, 녹농균(Pseudomonas)에 감염되어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입원한 뒤 매일 창상을 소독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여러 번 수술을 하면 모를까 당시로서는 절단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치료로 판단되었죠. 그러나 소년 본인도, 아버지도 절단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을 만큼 그간의 과정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환자들. 물론 치료의 목적, 그 중심은 당연히 환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선택에 있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능한 지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계가 변천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안타깝지만, 2주 후 돌아갈 외국인 의사인 처지에서 제 신념만을 고수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분쟁의 중심에서 흘린 땀방울

가자 지구의 휴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곳의 토요일은 우리의 일요일과 같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인력 중 많은 수의 현지인이 휴일을 확실히 지키므로 외국인 구호활동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호활동가 역시 재충전을 위해 2일간의 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 코디네이터를 줄라 알아크사(Al-Aqsa) 병원으로 가는 외과 팀에 자원했습니다. 이 병원은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가 곧바로 수송돼 오는 곳으로, 금요일 밤 동안 응급 수술에 대비하는 곳입니다. 예상대로 오후부터 총상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실려온 젊은이를 보자 '여기가 정말 총알이 날아다니는 땅이구나' 실감했습니다. 끊임없이 소리치는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옛된 젊은이가 의식을 잃고 침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그의 옆얼굴에서 팔팔 쏟아지는 피, 군인과 경찰이 같이 뛰어든 긴박한 장면은 이곳 상황이 분쟁의 현재 진행형이자 얼마나 절박한지를 여실히 느끼게 합니다. 기관 내 삼관한 튜브조차 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저는 그가 매우 위독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은 알아크사 병원은 첫 방문 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땀과 먼지에 검게 절어 있는 많은 남자로 가득했고, 그들의 살기등등한 눈은 희번덕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제나 자신이 죽거나 남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집단적 흥분 상태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이 나타나면 일제히 고개를 돌리는 사자 떼처럼, 우리가 타고 온 자동차를 무섭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미리 와 있던 코디네이터가 다가오더니 충고의 말을 하더군요. 절대로 독자 행동을 하지 말고, 수술장에 가서 현지 의료진을 돕다가 현장 분위기가 진정되면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돌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도 잠시, 수술장에 들어가니 이곳 역시 지난주와는 판판이었습니다. 많은 환자가 일시에 몰려 수술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한 수술방에서 동시에 두 환자의 수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보통 때와 달리 다리 총상 환자 외에도 응급 환자가 많았습니다. 연기가 가득해 정확한 조준이 불가능했는지, 시위가 과격해 이스라엘군이 위협을 느꼈는지, 상당수의 젊은 시위대가 몸통에 총을 맞아 응급 개복 수술이 필요했으며, 목숨이 위험한 환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다급해 현지 의사들도 대거 수술장에 와 일했기에 말 그대로 복세통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앞 수술에서 생긴 온갖 거즈나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았고, 피가 흥건한 바닥도 그대로 방치된 채 오로지 모든 인력이 수술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방 배정 문제로 의사들 사이의 갈등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형외과 골절 외 고정은 아예 수술방을 얻지도 못해 회복실에서 간단한 마취 후 이뤄졌습니다. 골절의 해부학적 고정이나 완벽한 소독 상태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었죠. 수술방에서 일하는 한국인 박선영 간호사는 아침부터 잠도 쉬지 못하고 상기된 얼굴로 계속 수술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의료 활동가의 마음

2주간의 의료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출국 수속을 모두 마치고 Erez Crossing을 한 번 더 통과하는 심정이란... 유일한 통로이자 약 1km의 길을 혼자 걷는 내내 착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양쪽에는 닭장 같은 철망이, 바깥으로는 황량한 광야가, 그리고 높은 담으로 봉쇄되어 있어 밖으로는 결코 나갈 수 없는 가자 지구 사람들의 갇힌 운명. 그 길은 다시 지나는 길이었던만큼 절대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혼자만의 적막하고 외로운 엑소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의 철저한 짐 수색과 엑스레이 전신 투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섰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의료 활동을 마치고 돌아서는 모든 의료 활동가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지나오지만 언젠가는 그 통로를 많은 사람이 지나가길, 아니 끝이 나길, 그들의 길고 긴 갇힌 생활도 끝이 나길 말입니다.



김용민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그는 충북대 정형외과 교수 등 전문의로 25년 이상 재직 후 지난 6월 명예퇴직했다. 지난 5월, 새로운 삶을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첫 발걸음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파견으로 시작했다. 10월부터 예티오피아에서 두 번째 파견 생활을 하고 있다.





어서 와, 사람 아닌 가족은 처음이지?

TV 리얼리티 예능에 나온 출연자의 '가족'이 깜짝 스타가 된다. 사진 몇 장으로 유명세를 얻은 'SNS 스타'가 광고 모델로 러브콜을 받는다.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린 청소년들은 '친구'와 산책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거나하게 술을 마신 아저씨들이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앞다퉀 간식을 산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들은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 네 발이다. 간혹 두 발과 두 날개를 가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들을 반려동물이라 부르고 있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나만 없어, 고양이.” 언제부터인가 SNS에 즐겨 올라오는 유행어다. 실제 통계를 보면 근거 없는 푸념만은 아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이제 전체 가구의 3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수는 1000만 명에 이른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발 달린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검은 고양이는 재수가 없다.” 한국인은 차가운 말로 인간과 동물 사이

의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나마 가깝던 개는 복날까지만 생존을 보장받는 가족이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애완동물을 지나 반려동물의 지위에 올랐고, ‘개어멈’과 ‘고양이 집사’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라인업은 온갖 품종의 개와 고양이는 물론 앵무새, 라쿤, 카멜레온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워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크게 보면 경제·문화적으

로 성장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결과인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변화가 더욱 급격하다. 서울, 광주, 경주 등 곳곳에서 벌어지는 펫 박람회를 찾아가면 그 열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예전 개나 고양이는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이나 대용량의 저렴한 사료에 만족했다. 하지만 이제는 원산지와 성분을 철저히 따진 영양식, 유기농 생식, 다채로운 간식을 즐긴다. 골목마다 자리 잡은 동물 병원은 정기검진과 펫 보험으로 건강을 보살피고, 다양한 놀이 시설을 갖춘 카페와 공원이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스타필드, 여의도 IFC몰 등 대형 쇼핑몰이 잇따라 반려동물 동반 쇼핑을 허용하며 펫 전용 호텔이나 택시 서비스도 생겨났다. 마지막까지 극진히 모시기 위한 전용 화장장, 고급 유골함 등의 장례 서비스도 빠뜨릴 수 없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그러니까 펫코노미(Pet+Economy)의 시장 규모는 올해 3조원을 돌파, 2020년에는 6조원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 즐겁다. 그러나 준비 없이 빨리 달려가다 보면 발이 엉켜 넘어진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울 들어 길거리를 헤매다 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반려동물의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급증한 것으로, 단순 실수로 유기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유행한 품종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하고 예쁜 동물이 TV 예능이나 SNS에 등장해 인기를 모으면 펫 숍에는 그 품종을 구하려는 사람이 몰려든다. 그러나 가족은 반짝 유행이 지났다고 남에게 주거나 버릴 수 있는 인형이 아니다. 최근 영국에서 흥미로운 광고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크리스마스를 맞아해 부모가 아이에게 강아지 인형을 선물한다. 아이는 너무나 좋아하며 어디든 데리고 다니며 놀고 끌어안고 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루해졌는지 강아지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린

다. 지나가던 이가 그 인형을 가져와 씻긴 뒤에 터진 곳을 꿰매고 따스한 눈길로 바라본다. 그러자 인형은 살아 있는 진짜 강아지로 바뀐다. 강아지를 되살린 사람은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회원으로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이렇게 순간적인 흥미로 동물을 키우는 일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온몸에 물감을 칠한 채 발견된 강아지,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니는 길고양이처럼 학대당하는 동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버릇을 들인다며 매를 대거나 전기 충격 매트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도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인 ‘개통령’ 강형욱은 말한다. “나쁜 개를 만드는 것은 나쁜 문화다. 개를 생명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것, 개가 버릇없이 굴도록 내버려두는 것, 모두 잘못이다.” 최근 SNS에서 하늘에 개를 날리는 듯한 ‘하늘샷’이 인기를 모으자 여기저기에서 따라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과연 그 개는 무섭지 않을까? 실수로 떨어지면 연약한 다리가 버터넬까? 오랫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해온 사람들은 처음 동물을 식구로 받아들여서는 이들에게 꼬치꼬치 캐묻는다. 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 가족 중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결혼이나 진학 등으로 거주 조건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등. 이런 심층 면접을 통과하면 이렇게 제안한다. “좋아요. 그런데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만약 스스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 “나만 없어, 고양이”라고 귀엽게 푸념하며 SNS에 올라오는 동물을 구경하는 ‘랜선 집사’가 되면 어떨까? 하루 종일 개나 고양이가 먹고 자고 노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유튜브 방송을 보아도 좋다. 여러 브랜드에서 쏟아지는 귀여운 동물 모양의 굿즈를 수집하는 것도 추천한다. 혹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을 자원해보자. 나만의 반려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의 반려로서 동물들과 함께하는 방법은 이렇게 많다.



지름 1.2m의 즐거움을 듣다

세종시 체육교사 킨볼 동아리 '킨더조이'



지름 1.2m의 커다란 공이 주변을 압도한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 큰 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984년, 캐나다 퀘벡의 체육교사 마리오 디머(Mario Demers)는 스포츠에 흥미 없이 의욕을 상실한 아이들을 위해 큰 공을 활용한 공놀이 '킨볼(Kin-Ball)'을 만들었다. 모든 구기 종목이 두 팀이 겨뤘던 승패를 가르는 방식에 비해 킨볼은 특이하게 세 팀이 겨룬다. 재미와 활동량 또한 다른 구기 종목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다. 세종시 체육교사 킨볼 동아리 '킨더조이'를 만났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Kin-Ball

풍선처럼 부푼 즐거움, 킨더조이

오후 6시, 세종시 도담고 체육관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아이가 모여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선을 빼앗긴 것은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킨볼'. 지름이 1.2m나 되지만 무게는 1kg이 되지 않는, 상상보다 압도적인 크기인 이 공으로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었다. 이에 킨더조이를 이끄는 김준도 교사(세종 도담고)의 설명이 시작됐다.

“킨볼 경기를 설명하면 대부분 사람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지만 의외로 룰이 간단한 경기입니다. 누군가 공을 치면(공격) 공이 바닥에 닿기 전에 공을 살리는(수비) 것이 기본이죠. 4명이 한 팀이 되어 총 세 팀, 12명이 함께 경기를 치르는데 신체 어느 부위로 공을 받아도 상관없고, 공을 가지고 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팀이 공을 놓치면 나머지 두 팀이 1점씩 얻고, 1위 팀은 점수가 가장 낮은 3위 팀을 공격할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처럼 킨볼은 룰부터 약자를 배려하고 협동이 꼭 필요한 경기입니다.”

킨더조이가 처음 생긴 것은 2018년 3월. 킨볼을 즐기거나 배우고 싶은 교사들이 만나 함께 연습하고 연구하면서 학생들과 제대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었다. 현재 참여하는 회원은 총 12명. 교사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각 학교 체육관을 돌아가면서 만나 킨볼을 연습한다. 킨볼 외에도 다양한 체육 수업을 연구하고,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동아리 활동을 즐기고 있다.

신뢰, 배려, 협동으로 하나 되는 킨볼

리더인 김준도 교사가 킨볼을 배운 것은 동아리 결성보다 훨씬 빨랐다. 2012년도에 세종시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뉴 스포츠'를 배우는 연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킨볼을 처음 만난 것이다. “처음 킨볼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계속 킨볼을 하게 되었죠.”

당시 연수 때 만난 손철 선생(현재 킨볼 국가대표 감독)은 운동신경이 남다른 김준도 교사에게 킨볼을 계속할 것을 강력히 권했고,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직접 킨볼을 가르쳐주면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킨더조이 소속 회원들 역시 킨볼 동아리를 만들어 꾸준히 연습하고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학생'을 꼽는 데 주저함이 없다.

“체육교사로서 그동안 정말 많은 스포츠를 해왔어요.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 킨볼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도 소외감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애들이 다같이 즐거운 스포츠를 해야 하는데 축구, 야구, 농구 같은 경기는 사실 핵심 멤버만 경기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킨볼은 모든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모두 함께해야 이끌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협동심, 배려, 신뢰를 배우게 되죠.”



김준도 교사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하자 옆에 있는 이지현(세종 도담중) 교사도 덧붙인다.

“보통 다른 구기 종목은 경기를 하다 보면 실력 차이에 따라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킨볼은 초등학교 대 성인이 아니라면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1등은 2등만 공격할 수 있고, 2등과 3등은 1등만 공격해야 하니 박빙으로 계속 치열하고 재밌게 뛸 수 있죠.”

강당 뒤에서 깔깔거리며 한창 연습 중인 아이들을 바라보던 교사들의 입꼬리가 쓰옥 올라간다. 김준도 교사는 내친김에 킨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소위 말하는 문제가 많은 아이가 킨볼을 시작하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결석률이 높던 아이가 킨볼 부원이 되면서 학교에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나도 팀원’이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행동과 말이 순화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많던 한 아이는 지난해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폰만 붙들고 혼자 놀던 아이, 이기주의가 팽배하던 아이가 킨볼을 시작하면서 친구 관계는 물론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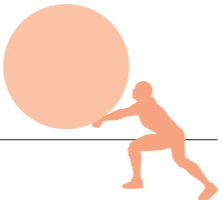
킨더조이에는 다른 취미 동아리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킨볼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준도(세종 도담고) 교사, 이재우(세종 어진중) 교사,

양승택(세종 소담중) 교사, 이지현(세종 도담중) 교사는 킨더조이 활동 중에 킨볼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지난 10월에 개최된 중국 아시아컵 킨볼 대회에 출전, 중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은메달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다. 킨더조이 활동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 경기에서 메달을 따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으니 킨볼로 인해 회원들이 얻은 것이 참 많기도 하다. “재미로 시작했다가 국가대표까지 됐으니, 그 자체로도 저희에게 매우 의미가 큼니다. 이지현 교사는 육상선수로 뛰었고, 저는 축구를 했는데, 당시 이루지 못한 국가대표의 꿈을 킨볼로 이룬 셈이죠.”

김준도 교사의 말에 이지현 교사가 활짝 웃는다. 킨볼 국가대표가 된 4명의 회원은 모두 “일신의 큰 변화는 없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라고 입을 모았다. 아이들은 국가대표에게 킨볼을 배운다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않았고, 동료 교사들은 국가대표와 같은 교무실에 함께 있다고 즐거워하니 국가대표라는 이름의 묵직한 책임감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 간 관계 또한 달라졌다. 동료로 시작해 공식 만남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형, 동생 사이가 되어 사적으로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고.

인터뷰 말미, 전국학교스포츠클럽킨볼대회를 앞두고 맹연습 중인 조성민·현승리·이수민(도담고 1학년) 학생과 살짝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셋이지만 모두가 한목소리를 낸다.

“킨볼의 좋은 점은 여러 명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경기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동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김준도 선생님도 최고입니다!” 인터뷰는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학생들. 아이들의 미소에서 킨볼의 미래를 보았다면 과연 장일까?



킨볼 동아리 '킨더조이'와 함께해요!

킨볼은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전신운동으로 민첩성과 순발력은 물론 4명이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상호 신뢰와 협동, 동지 의식까지 키울 수 있는 운동이죠. 배우고 싶다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수부터 상담, 자료 공유까지 아낌없이 함께하겠습니다.

☎ 김준도 회장 010-9519-0200



킨볼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도 소외감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킨볼은 모든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모두 함께해야 이길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협동심, 배려, 신뢰를 배우게 되죠.





몸에 좋은 건강 주스 클렌즈 주스

우리 몸은 원래 pH 7.3 정도의 약알칼리성이지만, 육식과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산성화가 되어가고 있다. 몸의 균형이 필요하다. 해독 주스와 유사한 '클렌즈 주스'는 설탕이나 물 등 일체의 첨가물 없이 채소와 과일로만 만든 것으로, 익힌 채소를 끓인 물과 각종 재료를 믹서에 넣고 갈아 만들어 걸쭉하고 포만감이 강한 해독 주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클렌즈 주스는 보통 콜드프레스 방식으로 즉시 섭취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쓴맛이 강한 비트나 케일은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사과 등 단맛이 나는 과일을 함께 넣어보자. 맛과 영양 모두 합격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클렌즈 주스를 만들 수 있으니, 자신만의 클렌즈 주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제조 후 2시간 이내(상온 기준) 섭취를 권장한다.



나를 위한 '비움'

12월, 오래 달려왔다. 비로소 해방이 필요한 시점, 몸과 마음을 비워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명상, 요가, 클렌즈 주스 등 일상에서 실천하는 비움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를 위한 비움의 이모저모, 지금부터 함께해보자.

글 엄용선 일러스트 청운

서울아쉬람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서울아쉬람

서교동에 있는 명상 위주의 요가원. '묵언수행' 카페가 명상을 주로 하는 요가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쉬람'은 수행자가 사는 초막 혹은 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요가라는 넓은 범주 중 특히 명상을 집중 수련할 수 있다. 믿음이나 철학에 대한 강요 없이, 형식이나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명상을 접하고 즐길 수 있다. "들음은 어떤 목적이나 고귀한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모든 것에 가슴으로 귀 기울이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철학자이자 테라피스트인 마크 네포의 글처럼 온전히 가슴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기본 프로그램은 45분 명상과 차담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처음 방문한다면 30분 일찍 도착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신청은 당일 한 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월 회원 등록 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명상 수련을 할 수 있다.

- 주 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50
- 평 일 6:00~21:30(주말·공휴일 별도 문의)
- 홈페이지 www.seoulashram.com



제주에서 즐기는 특별한 힐링 요가 플레이스 캠프

성산일출봉 옆에 자리한 플레이스 캠프 제주는 숙박 공간이자 복합 문화 공간이다. 유니크한 객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로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는다. 특히 여행의 아침, 햇살과 함께 몸과 마음을 이완해주는 요가 클래스는 더욱 특별하다. 요가는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 심신 수련법으로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기혈 순환을 원활히 한다. 매일 오전 8시 30분, 플레이스 캠프 액티비티 라운지에서 진행된다. 호흡 5분, 아사나 35분, 명상과 휴식 10분으로 총 50분이 소요되며, 요가를 끝낸 후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플레이스 캠프의 콤마 요가 프로그램은 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회 참여비는 1만원(투숙객 9000원)이다. 미성년자는 해당 클래스에 참여할 수 없다.

- 주 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 20
- 문의 064-766-3083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 도가

도가(Doga; Dog Yoga)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를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 요가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으로, 최근 TV를 통해 연예인이 반려견과 함께 도가를 체험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도가는 반려견과 함께 공동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반려인과 반려견 사이 애착과 교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평소 반려견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게 만들어 움직임의 범위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반려견의 총동 조절, 긴장 완화, 모방과 인지를 통한 사회적 학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특히 지나치게 활동적인 반려견을 진정시킬 수 있고, 휴식을 제공해 스트레스 완화에도움을 주기도 한다. 몸에 좋은 요가, 이제는 반려견과 함께하자!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

아름다운 자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 그곳에는 우리 민족이 피워낸 소박한 문화와 깨달음의 시간이 공존한다. 템플스테이는 크게 체험 타임과 휴식 타임으로 구분되는데, 절 에절을 비롯해 발우공양과 백팔배, 연등 만들기 등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휴식은 말 그대로 사찰에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는 것.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마음이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싶을 때 템플스테이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비움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02-2031-2000
- 홈페이지 templestay.com



아비뇽, 신과 인간의 시간을 엮어서

침묵을 통해 만나는 도시가 있다. 신의 영광과 고통, 인간의 희로애락이 맞물려 끊임없이 이야기를 짓던 땅. 유구한 시간의 강을 거슬러 남겨진 도시, 프랑스 아비뇽(Avignon)에서는 부디 고요할 것. 듣고, 사색하고, 품을 것. 그게 여행자의 도리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사진 양정훈 외





안개비에 젖은 천년의 건물들, 그사이 따끈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조용조용 담소를 나누고 있는 시민들의 풍경은 다른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그림이 되고, 시가 된다.



때로 여행은 사색을 선물한다. 특히 역사의 깊은 장면을 데리고 올 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시간의 성물(聖物)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여행은 시가 되고, 기도가 된다. 아비뇽은 신의 도시였고, 동시에 서로를 끌어안으며 신이 부재한 시대를 살아낸 보통 사람들의 도시이기도 했다. 커다란 성문을 지나 아비뇽의 심장에 들어선다. 시간이 잠시 멈추더니 이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열리는 길

파리에서 약 700km. 아비뇽에 도착하니 촉촉하게 비가 흩뿌리고 있었다. 여행 내내 비는 멈출 줄 몰랐는데, 사실 아비뇽이 위치한 프랑스 남부 지역은 연중 날씨가 맑고 일조량이 풍부한 곳이라 참 이상한 일이었다. 아비뇽의 옛 이름은 아베니오(Avenio). 고대 아리아족이 론강에 정착하며 형성된 거대 정착촌 명칭에서 기원했다. 강 하류의 너른 평야를 안고 온난한 기후까지 더해져 대대로 풍요로운 땅이었다.

지역 특성상 교통의 요지라는 점에서 아비뇽의 본격 성장은 시작됐다. 프로방스 지역 작은 도시의 중심인 동시에 에스파냐와 이탈리아를 잇는 거점이기도 했던 사통팔달 지형은 상업적 번성으로 이어졌다. 농수산물물은 물론 직물과 종이, 보석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거래가 성했다. 이후 7명의 교황이 아비뇽을 신의 집으로 삼아 기거하면서 문화가 더욱 찬란하게 꽃핀다. 위엄 있는 성과 교회 건물, 론강과 풍성한 평야까지 아름다운 자연과 기품 있는 거리의 풍경은 수많은 예술가의 동맥에도 녹아들었다. 피카소, 페트라르카, 뒤마 등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문인이 이곳 아비뇽에서 작품 하나하나에 불어넣을 영감을 얻었다.

구도심에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를로주광장(Place de L'Horloge)에 가장 먼저 닿았다. '시계탑의 광장'이라는 뜻이다. 오페라극장, 시청사 등 유서 깊은 중세 건물이 긴 세월을 넘어 이 광장 여기저기에 그대로 남아 있다. 겨울비에 젖은 광장은 비교적 한적한 모습이다. 낯선 도시에서 궁금한 것이 많은 여행자만 부지런히 오가고, 대부분 시민은 비를 피해 지붕이 있는 레스토랑의 테라스나 커다란 캐노피(Canopy)를 내린 노천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광장 한편에는 색색을 칠한 회전목마가 쉽 없이 돌아가는 중이다. 안개비에 젖은 천년의 건물들, 그사이 따끈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조용조용 담소를 나누고 있는 시민들의 풍경은 다른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그림이 되고, 시가 된다.

낯선 땅에 신의 날들

멀리 언덕 위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엄중한 분위기의 아비뇽 교황청이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거대한 요새이자 유럽 최대 규모의 고딕양식 건축으로, 교황청을 둘러싼 성벽의 두께는 4m, 높이는 50m, 전체 면적은 1만500km²에 달한다. 교황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미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내부 곳곳에서 70년간 아비뇽의 영혼의 되었던 일곱 교황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다. 그 나저나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기 마련이다. 바티칸도 아니고 프랑스 남쪽 도시에 대체 왜 교황청이 들어선 것일까?

보통 아비뇽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교황이 로마 바티칸에서 쫓겨나 이 도시에서 머물던 '아비뇽 유수(幽囚)'가 아닐까 싶다. 중세 말기 유럽의 교회는 혼돈의 시대 한복판에 있었다. 왕으로 대표되는 세속 권력과 교회가 반목하던 때였다. 1309년 교황 클레멘스 5세(Clemens PP. V)이 즉위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Philip IV)의 견제로 결국 바티칸이 아닌 아비뇽에 임시 교황청을 마련한다(당시 바티칸은 프랑스의 지배권이였다). 아비뇽 교황의 시대(Avignon Papacy)가 열린 것이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아비뇽 유수의 기간은 70년이나 계속됐고, 차례로 무려 7명의 교황이 아비뇽에서 교회를 이끈다. 어찌 보면 천축의 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아비뇽은 문화적 번영을 이룬다.

1. 아비뇽 교황청의 미사 시간.
2. 아비뇽 교황청 바티칸으로 가지 못한 일곱 교황의 서사가 남아있다.
3. 교황청 예배당에서 누군가 깊은 기도를 올리고 있다.
4. 론강에서 아침 산책을 하는 아비뇽 시민들.
5. 레퀴블리크거리의 회전목마. 화려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설이다.



잃어버린 신에게서 인간의 시대로

그러나 동시에, 이 기간은 아비뇽 시민에게 신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종교적 회의(懷疑)의 날들이기도 했다. 가톨릭교회가 동의할지는 알 수 없으나 유수 기간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아비뇽의 교황은 프랑스 왕실의 법과 규정, 세속법을 흉내 내 교회법을 고치며 권력을 강화했다. 시민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심지어 성직을 매매했다고까지 전해진다. 이는 신과 교회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았고, 변질되고 부패한 종교 권력에 대한 실망과 반감으로 이어졌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비뇽 유수는 아비뇽 시민들에게 과연 신과 교회의 상상이 기거하던 성스러운 시절이었을까, 바티칸으로 돌아가지 못한 종교 지도자를 향한 애도와 연민의 시간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인간의 시선이 마침내 신이 아닌 인간 자신을 향하게 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을까. 고스란히 남은 교황청의 문과 석벽과 십자가의 침묵이 더 깊고 아련하게 느껴졌다.

가장 인간다운 곳으로

신의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아비뇽 서민들의 풍경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여행을 하면 시간이 허락되는 한 반드시 방문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작은 카페가 늘어서 있고, 현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그 지역 삶의 표정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아비뇽의 대표적인 시장 레 알 마켓(Marché Les Halles)으로 향했다. 참고로 이곳은 화요일부터 주말까지 오전 6시에 문을 열고 오후 1~2시쯤 영업을 접는, 이른바 오전 시장이다. 실제 유럽에서는 이렇게 오전이나 저녁에만 열리는 마켓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넝쿨로 둘러싸인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여름이면 전체가 초록색 넝쿨의 거대한 식물원처럼 변하는 레 알 마켓 현재의 외관은 15년 전 식물학자이자 지금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인 파트리크 블랑(Patrick Blanc)에 의해 탄생했다. 이 시장이 처음 문을 연 것은 1859년. 자그마치 160년간 아비뇽 서민의 삶을 지켜봐온 셈이다. 여전히 40개가 넘는 상점이 성업 중이다.

함께여서 위로가 되는 시간

소녀와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갓 구운 크루아상을 고르고 있다.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술한 색과 향의 치즈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중년 여인의 얼굴은 진중하고, 생닭을 그 자리에서 손질해 봉투에 담아 주는 상인의 표정에는 익살이 가득하다. 손님이 없을 땐 학생들이 지날 때마다 배를 누르면 '꾹계꺅' 소리를 내는 치킨 인형의 배를 놀래대며 깜짝깜짝 놀래키는 게 그의 취미다. 이곳에서 파는 모든 것이 신선하지만 그중 가장 으뜸은 저들의 얼굴과 표정이 아닐까. 크리스마스를 맞아 따뜻하게 데운 뽕쇼(Mulled Wine)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건네던 노인에게 잠시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이 시장이 아비뇽 사람들에게 숨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삶의 위안을 주는 곳이라고 했다. 사과크기를 가늠하고, 여기를 어떻게 잘라달라고 닭집 주인에게 부탁하며, 오늘은 토마토 신선도가 어찌네 저찌네 작은 실랑이를 벌이는 곳. 그녀의 말 마따나 이곳에 오면 사람의 온기가 고평 일 없을 것 같았다. 그래, 삶의 위로와 기도는 교회가 아닌 시장에도 있었다. 정오를 넘어서며 이제 시장 사람들은 오늘 장사를 하나둘 접는 중이다. 밖으로 나오는 손님들이 손에 든 봉투마다 신선한 삶이 담겨 있다.

아비뇽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역사적 장소가 그렇지만, 특히 아비뇽을 여행할 때는 사소해 보여도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청에서 조금 내려오면 론강을 가로지르는 생 베네제 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별것 아니지만, 베네제 성인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교회와 싸우며 지은 기적의 다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 알고 가면 여행은 한층 깊어지죠. 아비뇽의 역사와 다양한 신과 인간의 이야기를 꼭 먼저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6. 노을 지는 생 베네제 다리의 전경.
 7. 교황청은 경건한 종교적 건물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을 시작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교황청을 둘러 아침 조깅을 하는 아비뇽 시민의 모습.
 8,9,10,11. 레 알 마켓에서 만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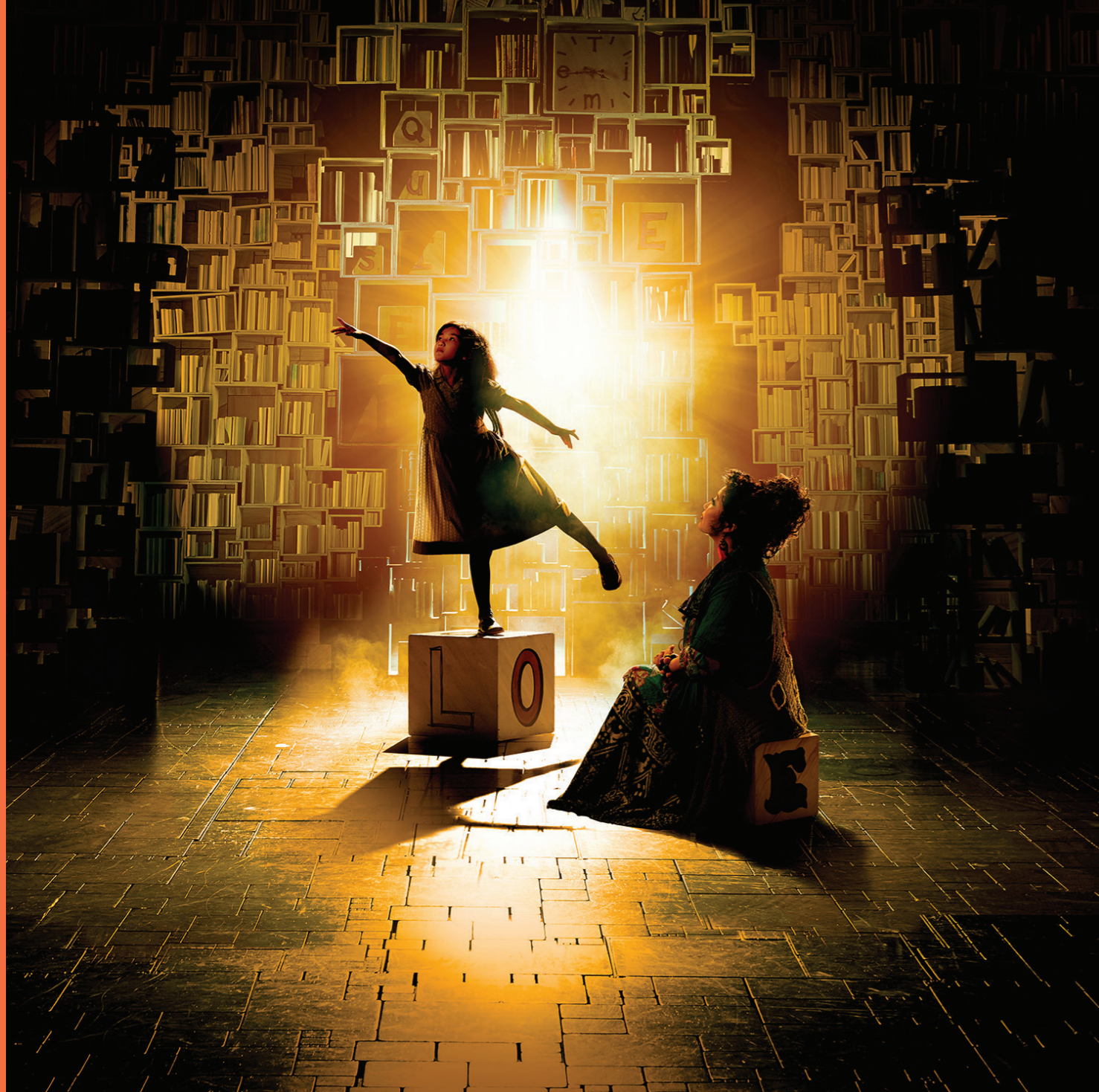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만든 기적 같은 인연

뮤지컬 <마틸다>

여전히 어리고 호기심 많은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말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다면 나와 타인의 인생에 꿈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글 현수정(공연평론가·중앙대 연극학과 겸임교수) 사진 제공 신시컴퍼니



“옳지 않아!”를 외치는 천재 소녀

“귀엽게만 봐주시지 말고 진정한 배우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예그린어워드 시상식에서 뮤지컬 <마틸다>가 ‘베스트 외국 뮤지컬상’을 수상했을 때 마틸다 역을 맡은 어린 배우들이 남긴 수상 소감이다. 자신들이 연기한 마틸다처럼 똑 부러진 이 말에 많은 관객이 감탄과 함성을 지르며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그런데 안쓰럽게도 작품 속 어린 마틸다는 어른들에게 박수는커녕 차가운 눈총을 받는다. 어른이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부조리에 “옳지 않아!”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고 치장하는 것밖에 모르는 마틸다의 부모는 책만 읽는 마틸다를 오히려 문제아 취급하며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찢어버린다. 마틸다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트런치불은 아이들을 구더기에 비유하며 좁은 징벌방에 가두거나, 투포환처럼 멀리 던져 버린다. 어른은 학대를 일삼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마틸다는 어른들의 폭력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노래한다. “불공평하고 또 부당할 때 한숨 쉬며 견디는 건 답이 아냐. 내 손으로 바꿔야지, 나의 얘기. 때론 너무 필요해 약간의 풀기”라고. 그러면서 물건을 움직이는 초능력을 발휘해 트런치불을 겁줘 내쫓기에 이른다. 마틸다의 초능력은 세 자릿수 곱셈도 척척 해내고 고전소설을 광범위하게 탐독하는 천재적 두뇌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남다른 의지와 옳은 일에 대한 신념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함께 치유되고 성장하는 마틸다와 허니 선생님

만일 마틸다 주변에 부모님과 교장 선생님 같은 어른만 있었다면 아이의 재능과 성격은 형벌로만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마틸다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바로 담임교사인 허니다.

허니는 마틸다를 “기적 같은 소녀”라고 노래하며 교육 상담을 위해 트런치불의 방에 찾아간다. 사실 트런치불은 허니의 이모이자 어린 시절부터 학대한 폭군 상사다. 따라서 트런치불의 방문을 두드리는 것은 허니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 마틸다에 대한 적대적 태도만 확인하지만, 허니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마틸다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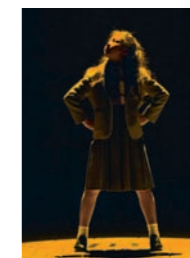
허니는 작품 안에서 마틸다만큼이나 성장하는 인물이다. 그



녀는 마틸다와의 인연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시작한다. 뮤지컬 <마틸다>에서 마틸다와 허니 두 사람의 깊은 유대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한 플롯을 형성한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는 것. 이러한 인연은 서로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극 중 어른의 캐릭터는 마틸다, 허니와 대립하는 플롯을 위해 극단적으로 설정되었지만 부조리한 기성 사회의 일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같이 ‘기적 같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죽이고 있는 어린아이를 기억하고, 그 아이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에게 먼저 말이다.

공연 정보



뮤지컬 <마틸다>

기간 ~2019. 2. 10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4만원, OP석 13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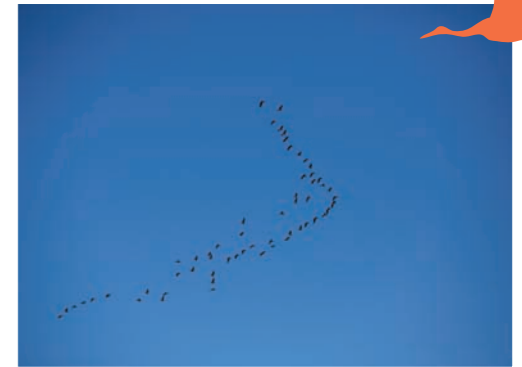
<말과 마음 사이>

이서원 저(샘터사)

진솔한 마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싶다가도 막상 눈앞에 서면 늘 서툴다. 말과 마음 사이를 살필 수 있을까. 말의 기술보다 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사람과 언어와 마음이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첫 장을 펼쳐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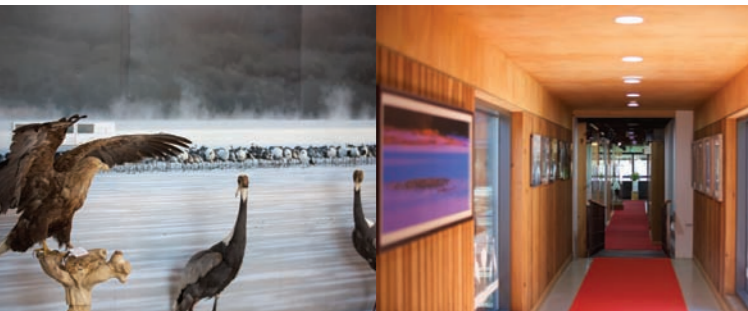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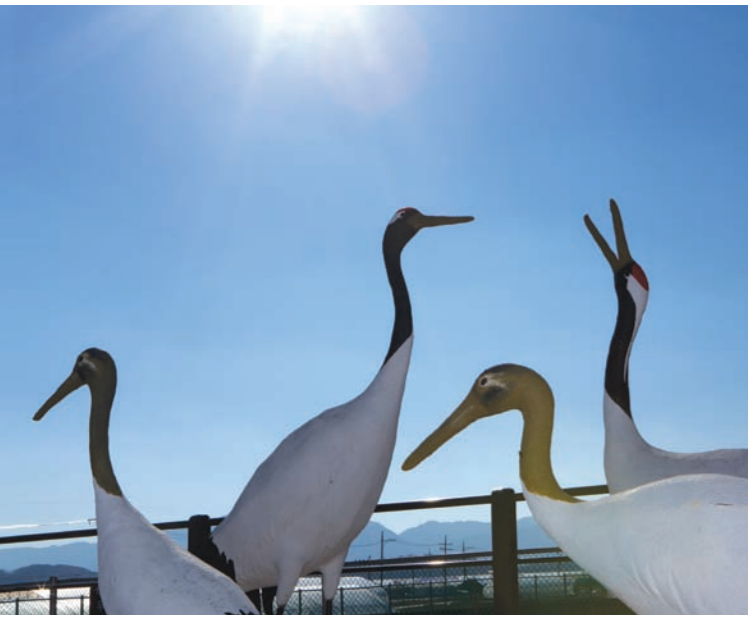
공존의 공간을 넘어서
DMZ철새평화타운



새파란 하늘에 까맣게 점점이 박혀 떼로 날아다니는 철새는 도시인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당긴다. 잠시 옷깃에 머물다가는 바람은 차지고 스산하다. 추수가 끝난 논에서 이삭을 줍던 두루미 가족이 문득 고개를 들어 홀로 서 있는 외지인을 바라본다.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공존의 공간, 강원 철원의 DMZ철새평화타운에 다다랐다.
글 이아도 사진 장병국



폐교, 두루미 타운이 되다
철원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잠시 놀랐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인데 철원은 대한민국 땅이 아닌 듯 시치미를 떼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청량한 공기, 쿡 찌르면 파란 물이 주르륵 쏟아질 것 같은 하늘까지 이곳이 바로 푸른 천국일까.
철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외지인에게 '내 고장 철원'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다. 지나가던 행인도, 택시를 타도 망설임이 없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귀한 철새가 오가는지, 그 철새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을 자신이 얼마나 많이 실어 나르는지, 이곳의 밥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공기는 얼마나 기막힌지...
그들의 손짓에 따라 하늘에 떼를 지어 날아가는 철새를 보고, 추수가 끝난 논밭도 바라보았다. 잠시 차창을 열고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말하는 대로 열심히 둘러보고 호응하는 방문객을 기쁘게 바라보는 택



시 기사의 목소리에 아까보다 조금 더 흥이 실렸다. 철원군 양지리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낮은 단층 건물에 도착하자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건물의 몇 배는 뒹직한 넓은 운동장, 사방에 놓인 두루미 동상, 목조 건축물을 보호하는 듯 단단히 뿌리 내리고 서 있는 소나무. DMZ철새평화타운에 도착했다. DMZ철새평화타운은 문 닫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세운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때 아이들이 뛰놀며 뛰어놀았을 학교는 지역의 쇠락과 함께 어느 순간 텅 비고 말았고, 허물어진 교실과 복도는 겨울이면 철새를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의 어설픈 등지 역할을 했다. 2016년에야 비로소 지금의 번듯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안타깝게도 그해에는 조류독감으로 개점휴업,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방문객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니 그 격변의 역사가 꽤 숨차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는 철원의 역사와 꺾이나 닮은 여정이기도 했다.

이 땅에 평화를, 이 평야에 두루미를

날아가는 학을 닮은 금학산, 화산 활동으로 모래층과 현무암, 퇴적토를 겹겹이 쌓아 올린 기름진 평야, 궁예가 도성을 개성에서 철원으로 옮기며 새로운 꿈을 꾸었던 곳. 한때 대한민국 정중앙에 위치한 도시로서 물류와 사

람이 몰려들었지만 삼팔선이 그어지면서 느닷없이 변방으로 몰락한 이곳.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월동 준비를 위해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두루미와 젊고 건강한 땅, 그리고 생생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냉전의 상징인 세계가 주목하는 비무장지대. 바로 철원이 품고 있는 것들이다.

DMZ철새평화타운을 천천히 둘러본다. 옛 초등학교의 앞마당이였음직한 곳에는 동물 보호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은 두루미 등 각종 새를 비롯해 크고 작은 동물의 박제가 마치 불사조처럼 서 있다. 방문객을 위한 도서관, 세미나실, 카페 등도 잘 정돈된 모습으로 들어서 있다. 일상의 공간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모습은 그 자체로도 가슴 벅찬 의미를 갖는다. 지역과 지역민의 애정이 곳곳에 깃든 듯 따듯함이 물씬 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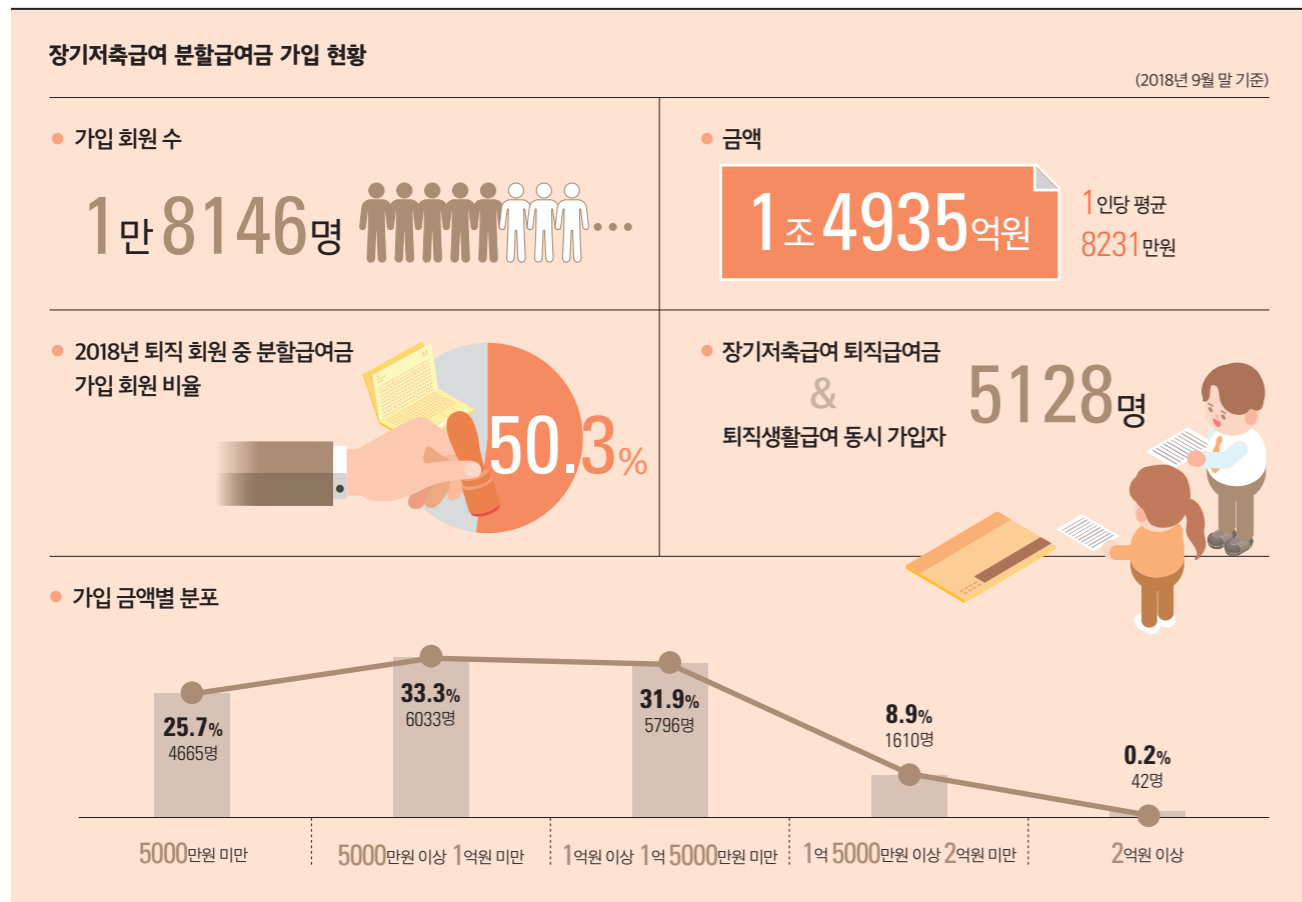
철원의 또 다른 주인이자 이 공간의 주인인 두루미는 이제 철원 주민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 철원 사람들은 두루미를 위해 겨울 무논을 조성하고 우렁이, 미꾸라지 등을 풀어놓으며 행여 전신주와 전선에 부딪칠까 충돌 방지용 표식도 달아준다. 논바닥에는 벧짚과 벼 이삭을 깔아주고 도로와 농로 주변에 역새로 차폐까지 설치하니 두루미는 이곳에서 철원 주민과 함께 겨우내 마음껏 먹고 돌아다니며 새끼를 길러낸다.

하루 두 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있는 철새 도래지 탐방 활동에 따라나섰다. 저 멀리서 지켜본 두루미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새끼를 데리고 논에서 어슬렁거리는 두루미 가족, 모래가 드러난 저수지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대한 두루미 무리. 다양한 키와 색깔을 보니 전 세계 15종의 두루미 중 무려 7종을 이곳 철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김일남 해설사의 말이 실감난다. 눈길에 닿는 곳마다 느리지만 따듯한 봄별 같은 평화의 기운이 감돈다. 누구보다 두루미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푸드덕! 두루미 가족이 똬를 잣추더니 맑은 하늘로 훨훨 날아오른다.

공제회와 함께 설계하는 풍요로운 노후 생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노후를 대비해 자금운용 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것은 '안정성'이다. 노후에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매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라는 매력적인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꼼꼼히 따져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설계해보면 어떨까.

글 편집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적금처럼 마련한 노후자금을 퇴직 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는 제도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가입 후 구좌를 유지 중인 회원은 1만 8146명. 이들은 가입 시점에 총 1조 4935억원을 맡겨, 1인당 평균 약 8231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2015년 3월 출시됐다. 매년 퇴직 청구자의 가입률은 2015년 21.7%, 2016년 35.4%, 2017년 49.3%로 점차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올해의 경우 9월 말까지 정년·명예퇴직으로 퇴직 청구한 회원 1만 3693명 중 50.3%인 6892명이 분할급여금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할급여금, 1인당 평균 8231만원 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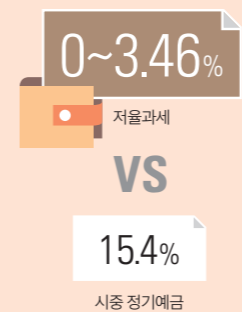
현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0만원 미만 4665명 (25.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033명 (33.2%)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 5796명 (31.9%) ▶1억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610명 (8.9%)의 분포를 보였다. 2억원 이상 가입자도 42명이나 됐으며, 최고액으로 2억 2200만원을 맡긴 회원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1만 8146명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자는 과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가운데 어느 정도를 분할급여금으로 예치했을까? 장기저축급여 가입 기간이 평균 24년 정도로 조사된 이들이 재직 중 적립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급여금은 약 1조 7782억원. 따라서 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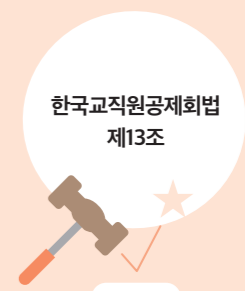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가입 자격: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상병퇴직 및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 가입 금액: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 가입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급여율(이율): 연복리 2.99%(변동금리)
- 유의 사항
 - 퇴직 청구 시에만 신청 가능, 탈퇴 회원 신청 불가
 - 전체 해약만 가능(부분 해약 불가), 중도해약수수료가 없음
 - 해약 이후 재가입 신청 불가

1 낮은 이자소득세



2 안전성 보장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매력적인 5가지 이유

(2018년 9월 말 기준)

3 수수료 없음



4 높은 실수령액



5 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



직 시 가입 금액 1조 4935억원과 비교해보면 전체 받은 금액의 84% 정도를 다시 분할급여금으로 공제회에 맡긴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3월 출시한 '분할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은 108명으로, 총 51억원 정도를 대여 중이다. 분할급여대여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려는 퇴직 회원이 보유 중인 대여를 퇴직급여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담보로 일정 기간 대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율은 2.99%(변동금리)다.

이제는 퇴직한 회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공제회의 대표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이처럼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오며 퇴직하는 회원들 사이의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연복리 2.99%(변동금리)의 높은 급여율과 0~3.46%의 낮은 이자소득세를 꼽을 수 있다. 시중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이율이 높은 반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적용으로 타 연금형 상품보다 실수령액이 높기 때문이다. 중도해약수수료, 운용수수료를 비롯한 일체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실수령액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분리과세)과 특별법으로 보장된 높은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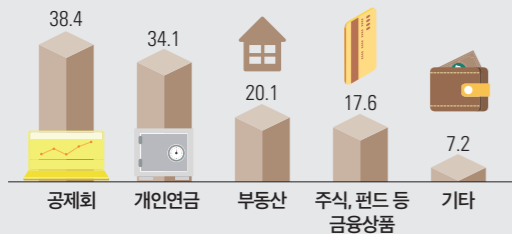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제도 안내

당신의 노후 준비는? 공제회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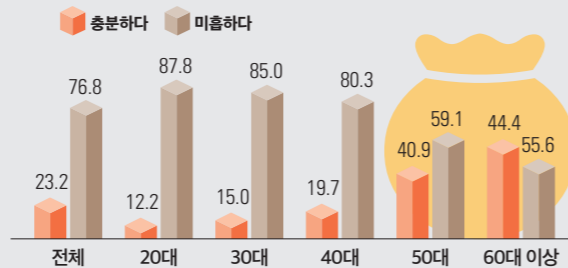
- 기간 : 2018년 10월 1~5일
- 대상 : 4812명
- 방법 : e-mail
- 연령(%) : 20대(12.6) / 30대(32.6) / 40대(30.6) / 50대(18.8) / 60대 이상(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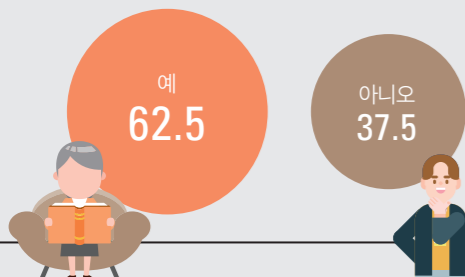
Q.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국민 등)을 제외하고 은퇴 후 노후자금 운용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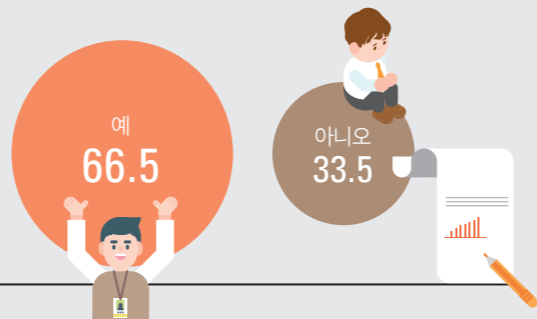
Q. 노후의 경제적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Q. 퇴직 시점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Q. 퇴직 시점에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최대한' 이용하려면

- 1 재직 시 장기저축급여 납입액을 최대한 늘려서 분할급여금 가입 한도를 늘려라
- 2 퇴직 시 대여가 있다면 상환 대신 분할급여대여로 대여 기간을 연장해라
- 3 퇴직 후에도 공제회 특별회원으로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점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금액 한도 내에서 단 1회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장기저축급여를 최대한 납입해 분할급여금 가입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저축액이 많더라도 대여액도 많다면 퇴직급여금 수령 시 대여상환 때문에 분할급여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는 '분할급여대여'를 이용해 일단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올해 3월에 출시한 분할급여대여는 '퇴직 시점 대여 잔액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의 70%' 중 적은 금액을 최대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연이율 2.99%(변동금리)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1억원에 대여

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대여액 40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6000만원을 분할급여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일단 분할급여대여로 4000만원의 대여를 연장하고, 1억원을 분할급여금으로 넣는 것이 '단 한 번의 가입 및 대여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면 퇴직 후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으로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제회 직영 호텔 및 한화대명 등 회원 전용 콘도 이용, 의료기관·레저·교통 시설 할인 등 재직 시 누리던 교직원공제회 회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콘서트, 여행, 자서전 출간 등 특별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The-K 은빛동행'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복지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오직 진심과 정성으로만 모십니다 The-K예다함상조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상조는 곧 우리 삶과 직결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해 만든 The-K예다함상조는 가장 바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로서 새로운 장례 문화를 선도해가고 있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공제회 가족의 요청으로 탄생하다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을 맞는 The-K예다함상조 (이하 예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다. 크고 작은 상조회사와 관련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 시절,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청이 그 출발이었다.

장례 문화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장 급하고 빠르게 변화한 분야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과 친지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렀다면, 아파트 생활과 핵가족 시대가 도래하면서 품앗이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새로운 장례 시스템을 요구했고, 수많은 장례업체를 양산했다. 그러나 과거의 악습이 좀체 끊이지 않으면서 상조회사는 많은 구설의 중심에 올랐다. 꾸준히 분납금을 내던 회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사의 부도, 웃돈 요구 등에 시달려야 했고, 이는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다함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장례 서비스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주요 경영 철학으로 고객 감동, 정직과 신뢰, 창의와 열정, 소통과 나눔을 내건 예다함은 이 중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행보를 걸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오지용 예다함 마케팅팀장이 자세히 설명했다.

“예다함은 교직원 복지를 위해 출발했지만 교직원공제회는 예다함의 설립부터 온 국민이 가입해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회사를 지향했어요. 처음 1년은 교직원 80%, 일반인 20%의 가입률을 보였지만 지금은 교직원 25%, 일반인 75%의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고객을 위한 시스템

예다함을 설명하는 특징은 많지만 그중 가장 호응이 높고 소비자가 되묻는 서비스는페이백 시스템이다. 이는 고객이 장례를 치르면서 계약 물품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환불해주는 서비스로 기존 상조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처음 계약할 때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도우미, 관, 버스, 수의 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하는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요. 예다함은 마지막 순간에 처음 정한 수보다 적은 사람, 적은 비용의 수의나 관을 사용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는 파격이었다. 다른 상조회사에서도 뒤늦게 이를 벤치마킹했지만 예다함과는 차이가 있다. 약관에 명기해 시스템화하지 못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금도 예다함만이 업계에서 유일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다.

“저희 의전팀은 전부 정규직 직원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나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정규 직원이라 함은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즉 장례를 치르며 서비스를 이행해도 추가 보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상조회사는 정규직이 아니라 도급이나 계약으로 합니다. 그건 의전 건당 계약 금액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운 용을 잘하면 부수입이 생긴다는 거지요. 정규직 과 계약직, 이게 무슨 차이를 불러올까요?”

오지용 팀장이 반문한다. 장례 비용이 덜 들면 그 게 곧 자신의 이익이 되는 업체와 장례 비용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당당하게페이백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되는 것이다.

예다함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부당한 웃돈이나 수수료 요구가 없는 것도 바로 이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비롯한다.



정성으로 함께 가는 길

또 하나, 예다함에서 장례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고객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장례지도사들이 매우 젊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조금 당황합니다. 장례 서비스를 이행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루만 지나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정중하고 세심한 서비스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면서요.”

예다함의 장례지도사는 대부분 대학에서 장례 지도를 공부한 전공자. 그래서 비교적 젊은 장례지도사가 많다. 이는 단순히 의도적이다.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존 관습에 젖어 있지 않은 보다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기적인 장례 교육 역시 장례지도사가 마음을 다잡고 올바른 장례 문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 같은 치열한 노력에도 예다함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살아계신 부모의 죽음을 대비한다는 것이 불효라는 의식이 아직 팽배해 있다는 점, 여전히 상조회사는 불안하고 완벽히 믿기 어렵다는 통념이 두툼한 벽처럼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 이 때문에 예다함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고,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쉽지 않은 여정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기도 하다. 장례 절차는 보통의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 장례식장 잡기, 3일간의 장례 절차에 대한 숙지와 스케줄 조율, 문상객 접대 도우미 고용, 입관에 필요한 수의와 관 등 다양한 용품 준비, 화장장 예약까지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는 일이 줄줄이 이어진다.

“현대인은 대부분 홀로 혹은 둘이 삼일장을 치릅니다. 이 과정에 전문가의 코치가 없으면 매우 힘듭니다. The-K예다함상조를 이용하신다면 장례 기간 동안 조문객과 함께 부모님을 경건하게 떠나보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직 고인을 보내는 가족의 마음만을 생각하는 예다함. 새로운 장례 문화의 선구자로서 매순간 열과 성을 다하는 예다함이 있기에 안심하고 ‘지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MINI INTERVIEW



오지용 The-K예다함상조 마케팅팀장

Q. 상조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고객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온 결과, 예전에는 고객이 상조사의 '전문성'을 먼저 봤다면 지금은 회사의 '재정안정성'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최근 4~5년 전까지 상조회사가 망했다는 뉴스가 계속되면서 달라진 분위기죠. 예다함은 지난해 재무재표를 공개한 상조업체 중 '지급여력비율 110% 이상, 부채비율 100% 이하, 영업 현금 흐름 250억원 이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 등 모든 구간에서 우수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믿을 만한 업체로 공인받은 거지요.

Q. 예다함에서 실시하는 지급보증계약이란 무엇입니까?

예다함은 신한·우리·하나·전북·수협·SC제일 등 6개 시중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설사 예다함이 잘못된다 한들 고객은 납입한 금액 전부를 은행에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업계 최초이자 국내 최대 지급보증계약입니다.

Q. 상조는 언제 가입하는 게 좋습니까?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가지 비유하자면 상조회사는 50만원 상품권을 미리 구매하는 게 아니라 휘발유 50L를 10년 뒤에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도 50L라는 재화를 무조건 주는 겁니다. 상조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0만원짜리 상품이 10년 뒤에 인건비, 물가, 상품 가격 상승 등으로 1000만원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고객은 400만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조는 하루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제5회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대상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월 2일 ‘제5회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에서 공제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한국기금·자산운용 대상은 공제회·보험사·대학 등 투자기관의 자산운용 성과와 건전성 등을 평가하며, 교직원공제회는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제회 부문 평가는 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5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정성·정량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수익성·건전성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을, 정성평가는 운용체계·위험관리·성과관리 등을 세분화해 심사했다. 특히 올해는 수년간 많은 투자금을 예치하는 대체투자 부문에 큰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 교직원공제회는 투자 프로세스와 운영 실적에서 단연 앞서 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2017년 ‘공정가치 평가 협의회’를 여섯 차례나 개최해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번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의 세 번째 수상으로 이전 수상을 통해 자산운용 역량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다. 공제회는 투자 결정 시 ‘사업 제안 검토→실무협의회→투자심의위원회→임원회의’ 등 최소 4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실무협의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실무자 전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을 도입해 직급에 관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공제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모바일 기능 확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최근 홈페이지(www.ktcu.or.kr)를 전면 개편해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공제회 홈페이지는 여러 개로 분산돼 있던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콘텐츠 접근 및 이동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메뉴 구조를 간소화했다. 또한 맞춤 설계, 간편 계산기 등 시뮬레이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내비게이터 콘텐츠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에도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 조회, 업무 처리, 이벤트 응모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직원라이프 ‘마음건강보장공제’ 출시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가 지난달 ‘마음건강보장공제’를 출시했다. 마음건강보장공제는 업계 최초로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마음질환을 특화해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수년간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질환을 겪는 환자 수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 치료와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5월 교직원공제회가 출시한 ‘교직생활퍼펙트공제’에서 마음질환 보장만을 특화했다. 또한 ‘교직생활퍼펙트공제’는 보장 대상자가 교원으로 한정돼 있던 반면, 이번에 출시한 ‘마음건강보장공제’는 보장 대상자를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했다.

▶진단금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마음건강보장공제는 마음질환 특화 상품에 걸맞게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금(최초 1회, 100만원)과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심리검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치료, 가족대상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가서비스로는 건강상담, 명의예약, 간호사 동행, 임신출산 관리 등의 마음건강케어서비스(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질환 진단 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면제 = 마음건강보장공제를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납입 완료·만기(생존 시) 기납입보험료를 100% 환급하며,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보험콜센터 1577-3993



구 분	내 용
심리상담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 심리상담센터 대면 심리상담 (환자별 일대일 맞춤형) 16회 ※ 대면 심리상담이 어려울 경우, 화상전화 심리상담 24회
가족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 심리상담센터 대면 심리상담 2회 ※ 대면 심리상담이 어려울 경우 화상전화 심리상담 3회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별 맞춤상담 프로그램 제공 위해 인지행동상담 프로그램 회기 중 환자 상태에 따라 BDI, BAI, MMPI-SCT의 검사 실시



The-K Family

The-K호텔서울, 아듀 2018 패키지 출시



The-K호텔서울이 연말을 맞아 ‘아듀 2018 패키지’를 출시했다. 일반실 1박, 우첼로 모닝 뷔페 2인 식사, 해리브룸튼 2병(또는 클라우드 생맥주 2잔)을 제공한다. 가격은 15만5000원이다. 패키지 이용 고객은 The-K호텔서울 내 우첼로, 더파크, 델리 이용 시 식음료가 15% 할인된다. 특히 우첼로에서 주류 및 안주 등 사이드 메뉴를 주문하면 20% 특별 할인된다.(중복 할인 불가) 또한 12월 24~25일 그랜드볼룸에서 다양한 콘서트와 디너쇼가 진행된다. 24일에는

peopleticket.com)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한편 The-K호텔서울은 내년 2월 28일까지 ‘윈터 힐링 패키지’도 선보인다. ▶패키지 A 일반실 1박, 우첼로 모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 B 일반실 1박, 더파크 저녁 뷔페 2인 18만원 ▶패키지 C 일반실 1박,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인 13만원이다. 패키지 A, 패키지 B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테이크아웃 커피 두 잔도 제공한다. ☎ 02-571-8100
공연 문의 1522-9864

The-K호텔경주, 온천 패키지 선보여

The-K호텔경주는 겨울철을 맞아 ‘온천 패키지’를 12월 한 달 동안 선보인다.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온천사우나 2인 이용권 구성에 12만5000원부터다. 또한 1964년 이전 출생한 공제회원을 위한 시니어 특별 패키지도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판매한다.

▶A형 객실 1박, 조식 2인 10만6000원 ▶B형 객실 1박, 조식 2인, 온천사우나 이용권 2인 12만원이다. 특별 패키지 이용 고객은 꽃마을경주한방병원 한방 건강검진, 씨네큐 영화 관람권, 경주시티투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말(2018년 12월 29~31일)과 설연휴(2019년 2월 2~5일)에는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겨울을 맞아 계절 특선메뉴도 새롭게 내놓았다. 한식당은 해물순두부찌개정식, 한방 꼬리곰탕 등을, 커피숍 아이리스는 대추생강차와 모과차 등을 출시했다.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온천 복합휴양시설 ‘스파월드’로 유명하다. ☎ 054-745-8100



The-K손해보험, 어린이 보험 온라인 이벤트 진행

The-K손해보험은 어린이 보험 상담 시스타벅스 카페라테(Tall)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손해보험 홈페이지(www.educar.co.kr)에 접속 후 이벤트창에서 (무)자녀 사랑플러스 건강보험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상담과 동시에 쿠폰을 발송한다.

지난 10월 출시한 (무)자녀사랑플러스 건강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수술 등에 대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고, 환급형으로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를 나눠 받을 수 있어 자녀 교육자금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다.

☎ 1566-3000



The-K지리산가족호텔, 산수유 패키지 판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지리산을 찾는 공제회원을 위한 ‘산수유 패키지’를 12월 21일까지 판매한다. 객실 1박(17평 기준), 산수유 세트 구성에 8만4000원~12만3000원이다. 산수유 세트는 건산수유, 진액, 젤리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산수유 제품을 맛볼 수 있다. 패키지 이용 고객이 2019년 1~3월 중 재방문 시 온천 이용권도 증정한다. 연휴 또는 연말 등 일부 기간 동안에는 패키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산행 픽업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 구간은 ▶정령치~노고단 코스 ▶지리산둘레길 코스 두 곳이다. 예약객 5인 이상 시 출발 가능하며 픽업 서비스 가격은 2만원이다. 픽업 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도 판매한다. 객실 1박, 산행 픽업 서비스, 온천 이용권 2인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0만5000원부터다. ☎ 061-783-8100

<The-K 매거진> 12월 즉석당첨 이벤트

행운이 함박눈처럼 펑펑 쏟아집니다~!

이벤트 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그동안 당첨이 잘 안 돼 서운하셨다고요? 연말을 맞아 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눈처럼 펑펑 쏟아지는 경품을 잡아보세요!

300개

400개

500개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모바일)

SPC 상품권
5천원권(모바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모바일)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2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1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인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정행위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듀, 우리의 산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리도 벅찬 걸까요. 12월호를 만드는 내내 감회가 남달랐어요. 촬영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도 그날 그 시간의 순간순간이 또렷이 기억날 만큼 말입니다. 여운이 오래 가네요. 2018년의 마지막 책이어서 그럴까요. 유달리 12월호에 만난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들이 맑아서 그럴까요.

어쩌면 아름다운 동행의 가장 친한 친구는 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아 몇 번이나 만났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제는 오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비와 굿바이를 외치겠지요? 우리의 8월의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그랬듯 비와 함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강풍이 불어도, 빗물을 뒤집어써도, 바닷물에 온몸이 흠뻑 젖어도,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는 드라마 명대사를 읊으며 함께한 4명의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해맑은 미소가 가득한 장옥현 선생님, 사랑이 가득한 눈을 지닌 변지현 선생님, 엉뚱하지만 따뜻한 윤상훈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보다 더 친친난만한 김재연 선생님. 늘 아이들이 주인공인 학교와 달리 아름다운 동행의 여행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죠. 너무나 기뻐하신 그 마음에 마냥 산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작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시간을 선물한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더랬죠. 그렇게 조금은 이른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웃을 웃음을 1박 2일의 여행 동안 다 웃은 것 같아요."
촬영을 마친 일주일 뒤 선생님들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그린 비움항의 등대와 함께 말입니다. 책상에 놓인 엽서를 바라볼 때면 우리가 함께한 비움항의 석양, 그리고 그곳을 지그시 바라보던 선생님들이 기억납니다. 선생님들의 뒷모습마저 말입니다.

쓰다만 글이 넘쳐납니다. 문장이 모여 글이 되듯 언젠가 이 글이 꽃이 되어 열매가 맺기를. 그렇게 여러분께 닿기를.

우리는 오늘도 꿈을 꾸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작은 순간이 모여 12월의 크나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기를. 진심 어린 온기가 전해지기를. 옮겨울 우리가 여러분의 작지만 따뜻한 산타가 되길 바라면서.

